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1



1 개성과 표현

(1) 진달래꽃

국문 확인 문제

19쪽

1. ① 2. ④ 3. ④ 4. ② 5.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이라며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2.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이미지이다. 이 시에는 '진달래꽃'을 통한 시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으나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연에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하고 있으며, 4연에서 이별의 슬픔을 참아 내고 자 하고 있다.
- ② '나 보기가 역겨워(7자) / 가실 때에는(5자) / 말없이 / 고이 보내(7자) / 드리우리다(5자)'에서 볼 수 있듯이 7·5조 3음보 율격의 민요조 운율을 사용하고 있다.
- ③ 1, 2, 4연을 동일한 어미 '-우리다'로 마무리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4연을 1연과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이의 정서와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식 참고 -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한 이미지를 가리킨다.

예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박남수, 「아침 이미지」)-시각적 심상인 '태양'을 '울림'이라는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함(시각의 청각화).

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임이 떠나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 임께서 밝고 가시기를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진달래꽃은 말하는 이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서 임에 대한 희생적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2연에서 말하는 이는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를 지닌 '산화공덕(散花功德)'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5. 말하는 이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임이 떠나면 슬퍼서 많이 울 것이라는 속마음과 다르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법을 반어라고 하는데, 이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강조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여 준다.

시험엔 이렇게!!

20~23쪽

1. ① 2. 진달래꽃 3. ③ 4. 1연과 4연 5. ⑤ 6.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님. / 각 연이 '-우리다'로 끝남. / 의태어를 사용함. 7. ②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임을 축복하고 있을 뿐, 임의 공덕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공덕이란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을 말하고, 예찬이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하는 이는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는 4연, ③은 2연, ④는 1연, ⑤는 3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말하는 이의 정서와 태도이다.
2. 말하는 이의 정서와 태도를 바탕으로 해석했을 때,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말하는 이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임에 대한 희생적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물이며, 떠나는 임의 앞길을 축복하는 소재이다.
3. 이 시는 1, 2행까지 세 번에 끊어 읽고, 3행도 세 번 끊어 읽는 3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다. ③의 경우 '아름 따다 / 가실 길에 / 뿌리 우리다'와 같이 끊어 읽는다.
4. 이 시의 1연과 4연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즉 4연을 1연과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5. 운율이 주제와 시적 의미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의미를 겹치거나 포개어 주제를 강조하는 것은 운율을 만들어 내는 요소와는 관계가 없다.
6. '봄하늘 / 하날하늘(7자) / 넘노는 길에(5자) / '에서 알 수 있듯이 7·5조 음수율과 3음보(한 행을 세 번 끊어 읽음.)의 민요적 율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각 연이 '-우리다'로 끝나 리듬감을 주고 있으며, '하날하늘',

‘송이송이’, ‘너홀너홀’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느끼게 한다.

7. 4연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말하는 이는 겉으로는 입과 이별할 때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표현에는 입이 떠나면 너무 슬퍼서 펄펄 울 것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와 같이 마음속 생각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인 반어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인용법, ③은 비유법, ④는 생략법, ⑤는 문답법에 대한 설명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7쪽

1. ④ 2. ② 3. ⑤ 4. ⑤ 5. ③ 6. 1연과 4연, 시의 구조를 안정되게 만들며 운율을 형성하고 시의 주제를 강조한다.

1. 영탄적 표현은 내용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감탄사(아아, 오호 등)나 감탄형 어미(-구나, -로다, -어라 등) 등을 이용하여 드러낸다. 이 시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별의 슬픔을 격정적으로 드러낸다고보다 애절하면서도 절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③ ‘영변에 약산’에서 ‘영변’과 ‘약산’은 실제 있는 지역 이름과 산 이름이므로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입과의 이별 상황에서 떠나가는 입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입이 가실 때에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며 슬픔을 인고의 의지로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인은 어미 ‘-우리다’의 반복, 3음보율, 1연과 4연에서의 동일한 시구의 반복, 수미상관의 구조 등에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특정한 음운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④ 1연과 4연에서 동일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 첫 행과 마지막 행을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이 시는 7·5조의 3음보율을 지닌 시이다. 4음보로 끊어 읽는 곳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1연의 ‘보내드리우리다’, 2연의 ‘뿌리우리다’, 4연의 ‘흘리우리다’의 주체는 말하는 이지만 3연의 ‘즈러밟고 가 시읍소서’의 주체는 떠나는 입이다.

오답 해설

① 입과의 이별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말하는 이의 체념적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영변 → 약산’으로 시상을 좁혀 뒤에 나오는 ‘진달래꽃’을 강조하고 있다.

③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돌레 안에 들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인 ‘아름’을 시어로 사용하여 입에 대한 사랑을 시각적으로 물량화하고 있다.

④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를 지닌 ‘산화공덕(散花功德)’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4. ④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⑤는 잘생긴 아이를 보며 어른이 진짜로 잘 생겼다고 하고 있으므로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5. ‘진달래꽃’은 이 시에서 입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진달래꽃’은 말하는 이의 분신이자 입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6. 이 시는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하는 문학적 구성법인 수미상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1연과 4연에서 유사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2) 열보다 큰 아홉

꼭꼭 확인 문제

31~33쪽

1. ④ 2. ④ 3. ④ 4. ② 5. 숫자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다는 자기 생각을 독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6. ③ 7. ⑤ 8. ① 9. ② 10.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을 지닌 수이기 때문이다.

1. 이 글에서는 복잡한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법인 분석의 서술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숫자 열과 아홉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숫자 아홉이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을 예로 들어 아홉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앞길이 구만리 같은’ 등의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숫자 아홉이 열보다 결코 작거나 적지 않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입니다.’, ‘-일까요?’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말을 직접 건네는 듯한 말투로 서술하고 있다.
2. 완전히 거의 다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하게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는 숫자 아홉에 담긴 의미이다.
3. 글쓴이는 4에서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다는 생각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홉이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2에서 든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경우를 십상 좋다고 한다.’라는 사례는 글쓴이가 열이란 수가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성공을 한 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든 예이다. 따라서 ④는 나머지 사례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①에는 문답법이 드러나 있는데, 글쓴이는 이처럼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은 인용법, ③은 반복법, ④는 생략법, ⑤는 설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설의법은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5. 글쓴이는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다는 생각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홉이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을 나열하고 있다.
6. 이 글은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개성 있고 꾸밈없이 드러낸 수필이다.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풀어써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의 특성에 해당한다.

7. 아홉이 열보다 작은 수인데도 열보다 크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아홉에 담긴 함축된 의미와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반어법에 관한 설명 내용이다.
 ② 대구법에 관한 설명 내용이다.
 ③ 비유법에 관한 설명 내용이다.
 ④ 풍자에 관한 설명 내용이다.

지식 창고 - 비유법

- 직유법: ‘-듯이’, ‘-처럼’, ‘같이’, ‘-인 양’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은유법: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예) 내 마음은 호수요
-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8. 글쓴이는 숫자 열을 완벽한 숫자로 생각하지만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홉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9. ①은 관용 표현 중 하나로,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를 표현한 격언에 해당한다. 명언은 사리에 꼭 들어맞는 말로 특정 유명인이 한 말을 일컫는다. 명언으로는 에디슨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와 같은 예가 있다.
10.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더 사랑했다.

시험엔 이렇게!!

34~40쪽

1. ⑤ 2. 청소년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홉이라는 숫자처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중학생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3. ⑤ 4. 열보다 더 크다 5.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기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선수로 수상을 하며 느꼈을 슬픔을 표현한 문구이다. 6. ⑤ 7. 예시 답: 어제 가족들과 지진 참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어. 그런데 일곱 살 난 내 막내 동생이 저금통을 들고 오더니 자기도 집이 무너진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야. 한 푼 두 푼 모은 코 묻은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내놓은 내 동생, 정말 예쁘지 않니? 8. ② 9. ①

1. 글쓴이에 따르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도 여유 없이 꽉 찬 수는 숫자 열의 특징에 해당한다.
2. 이 글의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이 있다면 열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하라며, 아홉과도 같은 청소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
3.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나, 그 속에 진실이 함축된 표현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4. 글쓴이는 아홉의 의미를 열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5. 서로 모순된 의미의 '슬픈'과 '금메달'이 결합되어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만 했던 손기정이 금메달 수상 순간에 느꼈던 수상의 기쁨과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슬픔을 역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 문구이다.
6. 관용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을 분리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사전에서 한 낱말의 정의만을 외워 어휘 학습을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어휘의 확장이나 효과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코 묻은 돈'이란 어린아이가 가진 적은 돈을 뜻하는 관용어이다.
8.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실속은 전혀 없이 겉만 그럴듯한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밑줄 친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은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빛 좋은 개살구'이다.

오답 해설

- ①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는 말이다.
- ③ 얇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 ④ 밀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

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밀전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9.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는 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②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으로,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④ 소갈이 꾸준하게 힘써 일하여 많이 벌어서는 쥐같이 조금씩 먹으라는 뜻으로, 일은 열심히 하여서 돈은 많이 벌고 생활은 아껴서 검소하게 하라는 말이다.

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44~45쪽

1. ⑤ 2. ① 3. ④ 4. ⑤ 5. 열이 조금도 여유가 없이 꽉 차고 다음이 없는 끝나 버린 수인 데 반해, 아홉은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이 있는 수이기 때문이다. 6. ③ 7. ⑤ 8. ④ 9. 예시답: 숫자 아홉이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청소년

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거나 성찰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 있는 수필이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숫자 아홉이 들어간 관용 표현들을 활용하여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역설적이고 인상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가)의 앞부분에서 숫자 아홉과 열에 대해 말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④ (가)의 ‘그러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이다.’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활용하여 숫자 아홉의 일반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 ①은 숫자 아홉의 특징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숫자 열의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3. (나)에서는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지 않은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4. ㉠은 관용 표현(격언)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전달해 준다.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비유로, 이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해 준다.
5. 글쓴이는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이유를 토대로 아홉이라는 숫자를 더 크게 생각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6. 동양에 비해 서양에서 열을 더 사랑했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글쓴이는 (나)에서 동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은 (가)와 (라)에서, ②는 (나)에서, ④는 (다)와 (라)에서, ⑤는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마)에서 글쓴이는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에게 열보다 아홉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다.
 8.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③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 사람을 가리킨다.
9. 이 글의 글쓴이는 아홉이 그 부족함 때문에 열보다 큰 수로 여겨진 것처럼 청소년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중학생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3) 양반전

꼭꼭 확인 문제

49~55쪽

1. ③ 2. ⑤ 3. ① 4. ④ 5.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과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6. ⑤ 7. ④ 8. ② 9. ⑤ 10. 관곡을 갚기 위해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으로서 신분에게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이다. 11. ③ 12. ④ 13. ⑤ 14. ② 15. 예시 답: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 양반은 안 먹어도 긴 트림 /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불은 안 켜다. 등 16. ⑤ 17. ③ 18. ① 19. ① 20.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1. 이 소설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양반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 양반 계층의 경제적 무능력과 위선을 풍자한 소설이다.

오답 해설

- ①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겉치레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작가의 실학사상이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다.
- ④ 돈을 주고 신분을 사고파는 부정적 현실과 무능력한 양반 계층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⑤ 강원도 감사와 양반 아내의 말을 통해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군수가 양반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양반의 환자 일부를 갚아 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양반의 환자를 갚은 사람은 부자이다.

오답 해설

- ① “당신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관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쫓쫓. 양반, 양반이란 것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이구려.”라는 양반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② 강원도 감사가 양반이 사는 고을을 순시하다 관곡 장부를 조사하고 환자를 갚지 못한 양반을 적발해 낸 것으로 보아 자기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자신은 부자라도 항상 천시를 당하고 수모를 받지만,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하게 대접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경제력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한다.

4. ㉠은 뽕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이라는 뜻의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기사회생(起死回生):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5. 1에서는 관아의 곡식을 타다 먹고 갚지 못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양반 계층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하고 있다.
6. 이 글의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사고파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회는 부유한 평민층이 등장하면서 신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였다.

오답 해설

- ① 환자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처지에 놓인 양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반이 관아의 곡식을 꾸어다 먹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양반의 환자를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부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평민으로 전락한 양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부자는 군수에게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매매 증서를 작성하자고 한 사람은 군수이다.
8. 4에서 군수는 ‘사사로이 팔고 사더라도 증서를 해 두지 않으면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며 매매 증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오답 해설

- ① 군수가 매매 증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신분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가 되지 않게 거래를 분명히 하자는 것은 오히려 신분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의미이므로 신분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9. 작가는 신분을 팔고 평민으로 전락한 양반의 겉모습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면서 양반을 풍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명망 높은 양반이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희극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몰락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10. 양반이 평민의 차림새를 하고 군수에게 자신을 ‘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양반은 자신의 바뀐 신분에게 맞게 평민이 베풀어야 할 대하듯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다.
11. 5는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로서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 생활 태도를 담고 있다. 작가는 증서 내용을 통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공허한 관념이라는 것과 양반들이 현실적으로 무능하며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풍자하고 있다. 이 증서에서 부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12. 매매 증서를 보면 ‘밥을 먹을 때 맨상투(아무것도 두르지거나 쓰지 아니한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라고 하고 있다.
13. ‘얼음 위에 박 밀듯 된다.’라는 표현은 ‘책을 거침없이 유창하게 줄줄 내리읽거나 내리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4. ㉠은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는데, 돈벌이와 관련된 일을 천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5. 5에는 현실적으로 무능하고, 공허한 관념과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과 관련된 속담을 찾으려면 된다.
-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양반은 위신을 지극히 생각한다는 말이다.
 - 양반은 안 먹어도 긴 트림: 양반은 가난해서 식사를 못했더라도 마치 배불리 먹은 것처럼 길게 트림하는 법이라는 말이다.
 - 양반은 얼어 죽어도 깃털은 안 쫓는다.: 양반은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16.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 내용을 듣고 양반의 신분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많지 않자 불만을 토로하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7. 겉으로는 양반의 환자를 갚아 주고 신분을 사려는 부자를 칭찬하지만, 양반 매매 증서를 통해 결국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7의 증서가 부자의 신분 매매를 도우려는 군수의 의도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8. 7의 매매 증서에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양반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19. 이어지는 부자의 말인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 바꾸어 주옵소서.”로 볼 때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 내용에 실망하면서 기막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0. ‘도둑놈’은 백성을 수탈하는 양반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로, 작가는 이러한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층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시험엔 이렇게!!

56~59쪽

1. ③ 2. 양반의 신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및 이익이었습니다. 3. 양반의 부당한 특권과 횡포를 양반의 특권인 것처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4. ⑤ 5. ③ 6. 해설 참조

1. 이 글의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2. 군수가 작성한 첫 매매 증서에 양반의 권리, 특권 등 부자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고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 생활 태도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본 부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수정해 달라고 군수에게 요청하였다.
3. <보기>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양반에 대한 부자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4. 양반 계층의 무능함과 특권 의식, 위선적인 태도 등을 비판하고 있는 증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5. 대상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풍자가 아니라 해학이다. 대상을 회화화,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면에서 풍자와 공통점을 가지나, 해학은 익살스러운 어조로 웃음을 유발하며 대상에

대해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6. 예시 답

- 제목: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 내용 구성: 신호등이 켜지자 수많은 인파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이 인파 속에 한 장애인이 길을 건너는데 도중에 횡단보도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장애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결국 그는 길을 건너지 못한 채 서 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장애인의 절망한 표정을 대비한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64~65쪽

1. ④ 2. ① 3. ④ 4. ③ 5. 소인 6. ③ 7. ④ 8. ⑤ 9. 첫 번째 매매 증서에 자신이 기대한 내용과 달리 양반의 의무만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1. 이 글은 고전 소설이다. 고전 소설은 작품 속 시대상이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고려하며 감상할 때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가가 활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이해하면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2. 경제력이 있는 평민이 양반 신분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신분 질서의 엄격함에 동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3. 부자는 양반은 가난해도 대접을 받지만, 자신은 돈이 많아도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는다면서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와 (라)에서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고 양반의 신분을 샀음을 알 수 있다.
4. 이 글의 작가는 명망 높은 양반이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희극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처지를 풍자하고 있다.
5. 양반이 평민의 차림새를 하고 군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 칭한 것은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이다. 양반은 자신의 바뀐 신분에게 맞게 평민이 벼슬아치를 대하듯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다.

6. 이 글은 이야기(사건)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시점의 소설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개화기 이전에 지어진 고전 소설이자 한문 소설이다.
 ② 조선 후기의 사회상 중 하나인 양반의 신분 매매를 제재로 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겉치레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작가의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⑤ 돈을 주고 신분을 사고파는 부정적 현실과 양반들의 허례허식, 횡포 등을 풍자의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7. 작가는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의식을 군수가 작성한 두 가지의 매매 증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㉞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으며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 돈을 주고 산 양반 신분이므로 양반 중에서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얼음 위에 박 밀듯’은 말이나 글을 거침없이 줄줄 내리읽거나 내리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매매 증서에서 제시한 양반의 의무와 규범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관청에 나와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는 말은 매매 증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어기면 부자가 양반 신분을 빼앗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당시 벼슬아치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재물을 긁어모았기 때문에 문과 합격만 하면 재산을 얼마든지 불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문과 합격증인 ‘홍패’를 ‘돈 자루’라고 표현한 것이다.
9. 첫 번째 매매 증서 내용에 양반의 권리, 특권 등 부자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고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 생활 태도만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68~72쪽

1. ① 2. ③ 3. ⑤ 4. ⑤ 5.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6. ② 7. ④ 8. ④ 9.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 10. 아무리 대단한 기록도 깨어질 수 있으므로 더 큰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11. ② 12. ④ 13. ③ 14. ⑤ 15. 예시 답: 처음엔 군수가 양반과 부자 사이의 양반 매매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군수는 부자에게 병 주고 약 준 셈이군. 16. ⑤ 17. ② 18. ⑤ 19. ② 20. ④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노래하고 있는 ‘나’로,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2. 진달래꽃을 임의 앞길에 뿌리는 행위는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를 지닌 ‘산화공덕(散花功德)’의 전통과 관련이 깊다.

오답 해설

- 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②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④ 누워서 몸을 이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⑤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남녀 간 서로 그리워하는 애절한 정을 이르는 말이다.
3. <보기>에서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며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말하는 이의 소망을 위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와 <보기>의 말하는 이 모두 이별에 대한 정서를 3음보의 전통적 율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보기> 역시 3·3·4조의 3음보율을 보여 준다.
 ② 이 시에서는 말하는 이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드러나는 반면에, <보기>에서는 말하는 이의 자기희생적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이 시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보기>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시는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예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는 ‘위협’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말하는 이의 소망을 드러낸다.

4. ㉠에는 반어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에서도 ‘잇었노라’를 반복하여 속으로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봄빛처럼 포근한 눈’에서 말하는 이가 봄눈을 어떻게 느끼는지 비유(직유법)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② ‘찬란한 슬픔의 봄’은 ‘빛깔이나 모양 따위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지닌 ‘찬란하다’를 ‘슬픔’이라는 표현과 결합한 역설적 표현이다.
- ③ ‘소리 없는 아우성’은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인 ‘아우성’을 ‘소리 없다’는 표현과 결합한 역설적 표현이다.
- ④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은유법)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5. 3연의 마지막 시행에서는 이별의 정한을 자기희생을 통한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난다.
6.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는 아홉의 특징이고,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이 알맞다’는 것은 ‘십상 좋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열을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라고 하였다.
7. 이 글은 숫자 아홉의 의미와 청소년의 가치를 관련지어 글쓰기가 자기 생각을 서술한 수필이다. 따라서 이 글에는 글쓴이의 청소년 시절을 추리할 만한 단서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8. ‘열보다 큰 아홉’은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 역시 말 자체로만 볼 때는 모순이지만, 그 안에는 양보의 미덕이라는 진실한 의미가 담겨 있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은 대유법, ②는 과장법과 직유법, ③은 의인법, ⑤는 직유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지식 창고 - 대유법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 ‘흰옷’으로 우리 민족을, ‘백의(白衣)’의 천사로 간호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나타내는 것 따위이다.

9. ‘앞길이 구만리 같다.’라는 말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 표현이다.
10. 아무리 대단한 기록이라도 뒷사람에 의해 언젠가 깨어지기 마련이므로 먼저 세워진 기록을 절대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11. 이 글에서는 작가의 사민(양반과 백성) 평등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서문에 따르면 작가는 오히려 선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혼탁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양반층과 부패가 심한 관료 사회를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12.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자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과 행태를 듣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였다.

오답 해설

- ② 군수는 작가를 대신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작가는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군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
13. (바)에서는 부자가 양반 계층을 ‘도둑놈’에 비유하며 양반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특권을 남용해 백성을 수탈하고 이득을 취하는 양반층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14. 부자는 증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증서 내용을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
15. ‘병 주고 약 준다.’라는 관용 표현은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군수의 부자에 대한 행동을 비유하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6. (가)에서 대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에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반어의 표현이 있다(㉢).
17. ㉡에는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로,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이르는 말인 ‘구절양장’이 쓰여야 적절하다. ‘구곡간장’은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

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구만리’는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③ ‘구중궁궐’은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에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④ ‘구사일생’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⑤ ‘구천’은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벗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18. 글쓴이는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에게 꿈과 가능성의 숫자인 아홉을 더 사랑하라고 하며 용기를 주고 있다.

19. (라)와 (마)에서는 비판의 대상인 양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의 표현 방식이 나타나 있다. 양반이 스스로 평민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희화화하거나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하여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② 역시 양반의 글자를 ‘개잘랑(개의 가죽으로 만든 깔개)’과 ‘개다리소반(다리가 개의 다리 모양인 소반)’이라는 보잘것없는 것과 동일시하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④ 자신의 엉덩이를 써먹을 일이 없으니 다른 사람 대신 매를 맞아 주고 돈이나 벌겠다며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상황에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20. 작가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여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73~75쪽

(1) 진달래꽃

1. 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함. ㉕: 원망을 뛰어넘는 희생적 사랑을 보임. 2. 7·5조 3음보의 율격 /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에서 ‘-우리다’라는 어미의 반복 / 1연과 4연에서의 같은 시구의 반복, 수미상관의 구조 3. 말하는 이의 임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다. 4. 작가는 반어의 표현을 활용하여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열보다 큰 아홉

1. 아홉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수로 여겨지는 것처럼 청소년도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피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 • 공통된 표현법과 표현의 원리: 역설로, 겉으로는 모순되어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다. / • 표현의 효과: 단조로운 문장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3. 예시 답: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3) 양반전

1. (강원도 감사의 말을 통해) 환자를 갇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풍자한다. / (양반 아내의 말을 통해)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할 뿐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 / (부자의 말을 통해) 부당한 특권과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다. 2. 양반 계층을 직접 비판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면, 풍자를 활용해 비판할 때에는 힘 있는 양반을 희화화함으로써 부정적인 대상과 사회 현실을 은근하게 폭로하여 읽는 이에게 쾌감을 준다. 3. 예시 답: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 정치인 / 다른 사람의 노력을 빼앗아 자기가 한 노력인 것처럼 혜택을 누리는 사람 등

(1) 진달래꽃

1. 1연에는 임이 ‘나’가 보기 싫어 가신다면 입을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고 하는 말하는 이의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 있고, 임에게 진달래꽃을 밟고 가시라고 말하는 3연에는 말하는 이의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㉔에 1연에서 드러난 ‘체념’의 정서를 넣어 서술하였다.	
㉕에 3연에서 드러난 ‘희생’의 태도를 넣어 서술하였다.	
두 군데 모두 문맥에 맞게 서술하였다.	

2.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되고 있는 요소로

는 3음보율, 어미 ‘-우리다’의 반복, 1연과 4연에서 동일한 시구의 반복 등이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 바르게 서술하였다.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3. 이 시의 ‘진달래꽃’은 임의 앞날을 축복하는 소재로 말하는 이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을 표상한다. 〈보기〉의 시에서도 말하는 이는 임을 그리는 마음을 ‘뫓버들’에 담아 임에게 보내고 있다. 따라서 두 소재에 나타난 의미상 공통점은 둘 다 사랑의 증표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 요소	확인(✓)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였다.	
〈보기〉의 ‘뫓버들’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였다.	
두 소재에 담긴 의미상의 공통점을 서술하였다.	

4.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가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표현 방식을 ‘반어’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는 효과를 보게 된다.

평가 요소	확인(✓)
㉠에 쓰인 표현 방식이 반어임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반어의 표현이 주는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태에 맞게 서술하였다.	

(2) 열보다 큰 아홉

1. (라)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드러나 있는 문단이다. 글쓴이는 아홉이 그 부족함 때문에 열보다 큰 수로 여겨진 것과 같이 청소년도 완전하지 않기에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글쓴이가 언급한 아홉의 특성 중 하나라도 서술하였다.	
청소년(중학생)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아홉과 청소년의 특성을 연관 지어 그 끼임을 서술하였다.	

2. 이 글에서는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보기〉에서는 과거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역설의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공동된 표현법을 바르게 제시하였다.	
역설의 표현 원리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역설의 표현이 주는 효과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3. 속담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과 처한 상황을 보여 준다. 제시한 속담 역시 남녀 차별적인 전근대적 속담이므로 여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기존 속담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였다.	
기존 속담을 바탕으로 새롭게 바꾸었다.	
속담에 자기 생각을 담아 의미 있게 바꾸었다.	

(3) 양반전

1. 이 글의 작가인 박지원은 여러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주된 풍자의 대상인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강원도 감사의 말에서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파악하였다.	
양반 아내의 말에 담긴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비난을 파악하였다.	
(다)의 매매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부당한 횡포 등 부정적 모습을 파악하였다.	

2. 풍자는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 말장난, 시치미 떼기, 과장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돌려서 부당한 현실이나 힘 있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비판하는 표현법이다.

평가 요소	확인(✓)
직접 비판할 때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풍자를 통해 비판할 때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100자 내외의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대상을 찾아보고 답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요소	확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언급하였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대상을 예로 들어 서술하였다.	

2 발음은 정확히, 글은바르게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꼭꼭 확인 문제

86~100쪽

1. ①, ③ 2. ③ 3. ⑤ 4. ① 5. ⑤ 6. ‘ㄴ’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경우에는 [ㄴ]로 발음된다. 7. ④ 8. 원칙적인 발음: [마네], 허용되는 발음: [마네] 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1) [번꼐] (2) [동넉] (3) [피읍] (4) [논받] (5) [갈끈] 14. ㉠ 두(2) ㉡ 자음 ㉢ 열한(11) 15. ⑤ 16. (1) [할따] (2) [안따] (3) [굶따] 17. ④ 18. ㉠ ㄹ ㉡ ㅂ 19. ② 20. ⑤ 21. ③ 22. ② 23. ⑤ 24. ③ 25. ㉠ 주꾸미 ㉡ 고등어 조림 ㉢ 깍두기 26. 있데 → 있네. 남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므로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인 ‘-대’를 써야 한다. 27. ④ 28. ② 29. ㉠ 웬 ㉡ 웬

-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발음하여(③)의 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①) 표준 발음을 정한 것이다.
- 특별한 음운 변동 현상이 없는 한 자음과 모음의 원래 소리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억], [공짜], [신문]으로 발음해야 한다.
- ‘ㄴ’이 ‘예, 레’로 사용될 때는 늘 [네]로만 발음한다. ‘실레’에서는 ‘레’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네]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시계’는 [시계/시계], ‘혜성’은 [혜:성/혜:성], ‘비계’는 [비계/비계] 두 가지로 발음된다.
③ ‘지계’는 [지계]로 발음된다.

지식 창고 - ‘ㄴ’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ㄴ’은 [네]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계:집]	계시다[계:시다/계: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택/혜: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 ‘의리’와 같이 ‘의’가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니]로 발음된다. 따라서 ‘의리’도 [의리]로 발음해야 맞다.

오답 해설

- ②, ④ ‘희미한’의 ‘희’나 ‘하늬바람’의 ‘늬’는 ‘ㄴ’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니]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히미한], [하늬바람]이 올바른 발음이다.
③ ‘토의’의 ‘의’는 단어 첫 글자에 나오지 않는 경우이므로 [니]나 [네]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⑤ ‘우리의’의 ‘의’는 조사이므로 [니]나 [네]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지식 창고 - ‘ㄴ’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니]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픽어쓰기	씩어
틱어	희어	희땀다	희망	유희

- ‘의’로 쓰여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의]로만 발음된다. 따라서 ‘의의’는 [의의] 또는 [의이]로 발음해야 한다.

지식 창고 - ‘ㄴ’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네]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협비/협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 ‘무늬’의 ‘늬’, ‘희망’의 ‘희’를 [니], [히]로 발음하는 것은 ‘ㄴ’이 자음 ‘ㄴ’과 ‘ㅎ’을 첫소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ㄴ’이 ‘예, 레’로 사용될 때는 늘 [네]로만 발음된다. ‘예’와 ‘레’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네]와 [네]의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으므로, ④의 ‘은혜’ 역시 [은혜/은혜]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
- ‘만’의 ‘의’는 조사이다. 조사로 사용된 ‘의’는 [의/에]의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의 ‘ㄴ’이 ‘의’의 첫음절로 발음되어 [마늬/마네]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
- ‘ㄴ’이 ‘예, 레’로 사용될 때는 늘 [네]로만 발음된다. 따라서 ④의 ‘예상됩니다’는 [예상됩니다]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계주’의 ‘계’는 ‘예’와 ‘레’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ㄱ]과 [ㄴ]의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

② ‘안팍의’는 ‘팍’의 받침이 ‘의’로 내려가고, 조사 ‘의’는 [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으므로 [안파계]는 정확한 발음이다.

③ 조사 ‘의’를 [의]로 발음한 경우이다.

⑤ ‘람’의 받침이 이어지는 ‘이’의 첫소리로 발음되어 [센:바라미]로 발음한 경우이다.

10. ‘낫’과 ‘낫’의 받침은 뜻을 구별해 줄 뿐이다. 소리는 모두 [남]으로 발음된다.

11. 국어의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12. ① 창밖[창밖], ② 숲속[숲속], ③ 부엌[부엌], ⑤ 낚시[낙씨] 등은 모두 [ㄱ]으로 발음되지만, ④ 앞뜰[압뜰]은 [ㅂ]으로 발음된다.

지식 창고 – 다른 자음의 소리로 나는 받침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과]
웃[온]	웃다[운:따]	있다[인따]
젓[전]	빚다[빈따]	꽃[꼇]
쫓다[쫓따]	술[숯]	뺨다[뺨:따]
앞[압]	뒹다[뒹따]	

13.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대표음인 [ㄱ, ㄷ, ㅂ]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14.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을 겹받침이라고 한다. 국어에는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ㅇ’ 등 모두 11개의 겹받침이 표기에 사용된다.

15. ‘늑다’는 [늑따]로 발음되므로 뒤의 자음인 ‘ㄱ’이 받침으로 소리 난다. ‘없다[업따]’, ‘여덟[여덜]’, ‘끓다[끈따]’, ‘외곬[외골]’ 등은 겹받침 중 모두 앞의 자음이 소리 나는 단어들이다.

16. ‘훤다[할따]’와 ‘앓다[안따]’는 겹받침 중 앞의 자음인 [ㄹ]과 [ㄴ]이 소리 나며 ‘뒤에 오는 ‘-다’는 앞 자음과 만나 [ㅌ]으로 변한다. ‘끓다[굼따]’는 겹받침 중 뒤 자음인 [ㅁ]이 소리 나며, 뒤에 오는 ‘-다’는 앞 자음과 만나 [ㅍ]으로 변한다.

지식 창고 – 앞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넋다[넉따]	외곬[외골]
훤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17. 겹받침 ‘ㄹ’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다’는 자음 ㄷ앞에 있으므로 [막따]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③ 겹받침 ‘ㄹ’은 활용할 때 모음 앞에서 앞 자음은 [ㄹ]로, 뒤 자음은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은[말근]’, ‘맑아[말가]’와 같이 발음한다.

②, ⑤ ‘맑다’와 같은 용언의 ‘ㄹ’은 활용을 할 때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고[말꼬]’, ‘맑게[말께]’와 같이 발음한다.

지식 창고 – 겹받침 ‘ㄹ’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물고[물꼬]	엮거나[엮거나]
--------	--------	----------

18. 겹받침 ‘ㅃ’은 ㉠과 같이 대부분 [ㄹ]로 소리 나지만, ㉡처럼 동사 ‘뵈다’의 ‘뵈-’ 뒤에 자음이 오면 [ㅂ]으로 발음된다.

19. ‘넋다’의 겹받침 ‘ㅃ’은 [ㄹ]로 발음된다.

지식 창고 – 겹받침 ‘ㅃ’ 발음의 예외 규정

표준 발음법 제10항

다만, ‘뵈-’는 자음 앞에서 [뵈]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넋]으로 발음한다.

(1)		
뵈다[뵈:따]	뵈소[뵈:쏘]	뵈지[뵈:찌]
뵈는[뵈:는 → 뵈:는]	뵈게[뵈:께]	뵈고[뵈:꼬]
(2)		
넋-죽하다[넋쭈카다]	넋-둥글다[넋똥글다]	

20. ‘흙’ 뒤에 이어지는 말이 모음이며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앞뒤 말을 끊어서 발음한다. 따라서 ‘흙’의 겹

받침 ㄹ은 뒤 자음이 소리 나므로 [흑]으로 발음하고, [흑]의 [기]은 뒤에 오는 모음의 첫소리로 소리 나므로 [호귀]로 발음한다.

21. ‘꽃이’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은 말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츠’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가 되어 [꼬치]라고 발음해야 한다.

22. ‘ㅎ’ 받침은 뒤에 ‘ㄱ, ㄷ, ㅌ’이 이어지는 경우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적인 뜻을 가진 말이 이어지면 발음되지 않는다. 따라서 ‘닿은’은 [다은], ‘좋다’는 [조타]로 발음해야 한다.

지식 창고 - 받침 ‘ㅎ’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12항

1. ‘ㅎ(하, 하)’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던]	쌍지[싸치]
닿고[만:코]	안던[안턴]	닿지[달치]

23. ‘되+어서’의 줄임말이므로 ‘दै서’라고 표기해야 한다.

24. ㉠ ‘짜장면/자장면’ 둘 다 표준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동태찌개(×) → 동태찌개(○). ㉡ 육계장(×) → 육개장(○). ㉢ 곱배기(×) → 곱빼기(○), ㉣ 포장되요(×) → 포장돼요(○)

26. 남에게 듣고 전하는 것이므로 ‘-대’로 표기해야 한다.

27. ‘바래다’는 색이 변했다는 뜻이고, ‘바라다’는 ‘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의 뜻이다. ㉣는 ‘~국어를 잘하길 원한다’의 뜻이므로 ‘~국어를 잘하길 바라.’로 써야 한다.

28. ‘웬’은 홀로 쓰이지 않고 ‘지’와 함께 ‘웬지’라는 부사로 쓰여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뜻을 나타낸다. ㉡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이 승리할 것 같아.’라는 뜻이므로 ‘웬지’의 쓰임이 적절하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므로 ‘웬 일인가?’와 같이 뒤에 꾸며 주는 말이 있다.

오답 해설

㉠은 ‘웬’, ㉢은 ‘웬지’, ㉣는 ‘웬 일이야?’, ㉤는 ‘웬’으로 표기되어야 옳다.

29. ㉠은 ‘지’가 붙어 있으므로 ‘웬’이, ㉡은 ‘아기’를 꾸며 주므로 ‘웬’이 맞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04~105쪽

1.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정확한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2. ㉠ 3. ㉡ 4. ㉢ 5. 국어의 받침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뿐이며, 이외의 다른 받침들은 대표음인 [ㄱ, ㄷ,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 영지가 ‘दै으로’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민호가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 발음을 정하는 이유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임을 알 수 있다.

2. ‘ㄷ’이 ‘예, 레’로 사용될 때는 늘 [ㄷ]로만 발음한다. 따라서 ‘예절’은 [예절]로 발음해야 한다. 그 외의 ‘ㄷ’는 [ㄷ/ㄷ]로 둘 다 발음할 수 있다.

3. ‘만’의 ‘의’는 조사이므로 [의/에]로 둘 다 발음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의 받침 ㄴ이 ‘의’의 첫소리로 내려가므로 [마닉], [마네]로 발음해야 한다.

4. ‘안팎’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조사 ‘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팍’의 받침 ‘ㅍ’은 그대로 ‘의’의 첫소리가 된다. 그런데 조사 ‘의’는 [의/에]로 둘 다 발음할 수 있으므로 [안파끼]나 [안파께]로 발음된다.

5. <보기>의 단어들은 국어의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이 어떤 소리로 발음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 중 표기 그대로 발음되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뿐이며, 이외의 다른 받침들, 즉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ㅎ/ㅍ’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 ㄷ, ㅂ] 중의 하나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6. ‘옳다’의 겹받침 ‘ㅃ’은 뒤 자음이 소리 나므로 ‘표’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옳파]로 발음된다.

7. ‘불지’의 겹받침 ‘ㄹ’은 자음 ‘ㅌ’ 앞에 있으므로 [복찌]와 같이 [기]으로 발음한다. 나머지는 모두 용언의 활용형으로 ‘기’ 앞에 있으므로 [말꼬], [발끼도], [물께], [일께] 등과 같이 [리]로 발음한다.

8. '홀고'의 겹받침 'ㅈ'은 자음 ㄱ의 앞이므로 [홀꼬]와 같이 [ㄹ]로 발음한다.
9. '흙 위'의 '위'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흙'의 겹받침 'ㄹ'이 먼저 대표음으로 바뀌어 [혹]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는 받침 [ㄱ]이 '위'의 첫소리가 되어 [흐귀]로 발음된다.
10. 'ㅎ' 뒤에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ㄷ]으로 발음하므로, ⑤의 '쌓지'는 [짜치]로 발음해야 한다.
11. '되-'가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할 때는 '되어'로 써야 하고, 그것의 줄임말이 '돼'가 되므로, ⑤의 '안 되'는 '안 돼'로 써야 한다.
12. '김치찌개'가 아닌 '김치찌개'가 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 ①은 '육개장', ②는 '맛춤', ③은 '갈치조림', ⑤는 '주꾸미 볶음'이 바른 표기이다.
13. 병이 낫기를 바란다는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낫다'의 활용형인 '나아야'로 써야 한다. '낳다'는 '알을 낳다, 아기를 낳다'에서 쓰이는 말이다.

(2) 쓴 글을 돌아보며

꼭꼭 확인 문제

109~119쪽

1. ④ 2. ㄱ, ㄹ 3. ③ 4. ⑤ 5. ③ 6. ③ 7. ② 8. ② 9. 설득 10. ② 11. ② 12. ⑤ 13. (1) 발생을 → 발생률, 높이고 → 높이고 (2) 꾸준히 → 꾸준히 14. ④ 15. ①

1. 공자나 맹자가 공부를 한 까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를 한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글 전체 수준에서는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고, 글을 쓴 목적을 확인하면서 고칠 내용을 생각하며(ㄱ), 글의 주제와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인지 검토한다(ㄹ).

오답 해설

ㄴ과 ㄷ은 문단 수준, ㄹ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할 사항이다.

3. 문장의 호응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할 사항이다.

지식 창고 - 문장의 호응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말이 따라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한다.

※ 문장 호응의 예

마치처럼 / 만약(이)라면 / 결코않다

4.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살피는 것은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5. ①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다르지'로 고쳐 써야 한다. 그러나 ③은 '틀리다'의 의미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쳐 쓰지 않아도 된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옳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6. ①은 '좀처럼 모른다.'는 호응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장 호응의 오류를 보이는 것은 ③으로, '절대로'는 주로 '~ 아니다/해서는 안 된다'의 말과 호응한다.
7. 글의 주제를 바꾸면 주제에 내용을 새로 선정하고 조직하여 글을 아예 새로 써야 한다.

지식 창고 -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 첨가: 빠뜨린 부분을 보충함.
- 삭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
- 대치: 다른 내용으로 바꿈.
- 재구성: 순서를 바꾸거나 어휘를 바꿈.

8. 내가 쓴 글에 대한 평가를 듣는 것이므로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9. 이 글은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은 '설득'에 있다.
10. 문장 간의 연결을 검토하는 것은 문단 수준에서 고쳐

쓸 때 점검할 사항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글의 제목이나 구성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은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 ④, ⑤ 문장의 호응이나 단어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11.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소년이 운동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이므로 ㉠과 같이 청소년이 잘 걸리는 질병을 언급하는 내용은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12. 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에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식 참고 - 글쓰기 자료 수집과 매체

- 인쇄 매체: 책이나 논문, 지도 등 종이로 인쇄되어 존재하는 매체. 주로 객관적이거나 전문적인 정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알아보려고 할 때 유용하다.
- 인터넷 매체: 웹사이트나 누리집 등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매체. 검색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매체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으므로 자료의 신뢰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신문·방송 매체: 방송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매체. 주로 시사적이거나 시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

지식 참고 - 자료 수집의 다양한 방법들

- 질문지법(설문 조사): 다수의 사람이 가진 의견을 알고자 할 때, 질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법
- 문헌 조사법: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문헌을 조사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
- 실험법: 통제된 상황을 구성해 놓고, 조작된 변인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방법
- 참여 관찰법: 사회·문화적 특징이나 주관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해당하는 집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 면담법: 정보를 가진 대상과 직접 면담하여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 방법

13. (1)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ㄹ, ㄹ’로 적고 ‘ㄴ’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을, 열’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법

이므로 ‘발생율’은 ‘발생률’로 고쳐야 한다. 또한 ‘높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를 넣어 타동사로 만든 것이 ‘높이다’이다. 사동 접사 ‘-히-’를 넣은 ‘높히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2)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이므로 ‘꾸준히’로 적어야 한다.

14. 발자크가 작품 길이를 늘이기 위해서 내용을 고쳐 썼다는 사실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5. 고쳐쓰기는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과정일 뿐,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23~125쪽

1. •(나)의 주제: 공부해야 하는 까닭 •글을 읽을 대상: 공부하는 까닭을 모르는 학생들(교내 신문을 읽는 사람들) 2. ④ 3. ③ 4. ① 5. •고쳐 써야 하는 이유: 문장의 호응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다. •바르게 고친 문장: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알지 못한다.(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6. ② 7. ⑤ 8. ③ 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⑤ 15. (1) 햇빛이 → 햇별이 (2) 한국인으로써 → 한국인으로 (3) 언제나 항상 → 언제나(항상)

1. (가)에서 진희는 교내 신문에 실을 글을 쓰고 있다고 했으므로 예상 독자가 신문을 읽는 학교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첫 문단에는 ‘공부를 하는 까닭’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2. <보기>는 교육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해 주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부가 미래의 가장 좋은 대비가 된다는 (라)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보기>는 (다)와 (라)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다.
4.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은 글 전체 수준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⑤는 문단 수준, ③, ④는 문장 수준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5. ‘좀처럼’은 ‘~하지 않다’와 같이 부정문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해야 자연스럽다.
6. ㄱ. (나)에서 ‘이러한 청소년 비만이 왜 생기는 것일까?’와 같이 질문을 던져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ㄴ. (나)의 첫 문장에서 대한비만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7. ㉠은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운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글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8. ㉡의 앞 문장은 뒤의 문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내용이다. 즉 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운동 부족인데, 이러한 운동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청소년이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계속 연결되고 있으므로 ‘그리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와 같은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접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비만’은 신체 구성에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과체중’은 단순히 체중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0. (가)~(나)의 주제는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운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이다. 따라서 ‘운동 시간 부족’이나 ‘개인의 식습관과 게으름’을 다룬 자료는 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이 글에서 다른 사람이 발자크의 글을 수정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2. ‘여백’은 ‘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남은 빈 자리’란 뜻으로 ‘넓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문맥상 ‘이야기가 빠르지 못하고 느려지다.’의 의미이므로 ‘늘어지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발자크가 끊임없이 그의 소설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의 소설이 어느 작품보다 사실적이고 재미있으며 생동감이 넘쳤던 것이다. 이처럼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어를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되어’의 줄임 표현이 아니므로 ‘되겠어’로 쓰는 것이

맞다.

- ⑤ ‘한번’은 ‘지난 어느 때나 기회’를 뜻하는 명사이다. ‘한’을 띄어 쓸 때는 관형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13. 고쳐쓰기를 하면 예상 독자에게 알맞은 글로 수정할 수 있지만, 예상 독자를 더 잘 분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4. 글의 각 단계가 제구실을 하고 단계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점검하는 것은 글 수준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 좋은 글이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는 독자의 수준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 ②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흥미로운 내용이라도 삭제해야 한다.
- ③ 한 문단 안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 있어야 한다.
- ④ 제목은 글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15. (1) ‘햇별’은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을 뜻하는 말로, ‘따사로운 햇별/햇별을 쬔다/햇별이 쨍쨍 내리쬔다.’와 같이 쓰이고, ‘햇빛’은 ‘해의 빛’을 뜻하는 말로, ‘햇빛이 비치다/햇빛을 가리다.’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문맥상 (1)은 ‘햇별’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는 ‘-으로서’를 쓰고,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 ‘-으로’를 쓴다.
- (3) ‘언제나’와 ‘항상’은 의미가 비슷한 말이므로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생략한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128~131쪽

1. ③ 2. ① 3. ② 4. ⑤ 5. ① 6. ② 7. ④ 8. ④ 9. ⑤
 10. ‘썩요’는 잘못된 표기로, ‘썩어요’로 써야 한다. ‘썩요’는 ‘썩어오’의 준말이다. ‘썩어’와 ‘썩’의 표기가 틀리기 쉬운 것은 [썩] 발음과 [썩] 발음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① 17. ⑤ 18. ② 19. ⑤
 20. ③ 21. ③ 22. ⑤ 23. ④ 24. 마지막 문장의 ‘그리고’를 ‘그 덕분에’, ‘그래서’ 등으로 고친다. 마지막 문장과 앞 문장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네’가 ‘예, 레’로 사용될 때는 늘 [네]로만 발음된다.
2. ‘의사’와 같이 ‘의’가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ㄴ]로 발음된다.

3. ‘덜개[덜개]’만 받침이 [ㄴ]으로 발음되고, 나머지는 ‘별빛[별:뽀], 낮잠[낮잠], 히읏[히읏], 헛과일[헛과일]’처럼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4. ‘옴(다)’는 겹받침에서 뒤의 자음인 ‘ㅍ’이 대표음인 [ㅂ]으로 바뀌어 [옴파]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앓(다)[안파], 꿇(다)[곤파], 핥(다)[할파], 없(다)[업파]’로 발음되므로 겹받침 중 앞 자음이 소리 나는 경우이다.
5. 동사 ‘밟다’의 ‘밟-’ 뒤에 자음이 오면 [ㅂ]으로 발음되므로 ‘밟고’는 [밟꼬]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넓고[널꼬], 짧다[잘파], 여덟[여덟], 얹지[알:찌]’의 겹받침 ‘ㅍ’은 모두 [ㄷ]로 발음된다.

6. ‘닭장’은 [닥짱]으로 발음되므로 [ㄱ]으로 소리 난다.

오답 해설

① ‘닭’은 겹받침의 [ㄱ]이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가 되어 [달글]로 발음된다.

③ ‘닭만’은 겹받침이 대표음인 [ㄱ]이 된 뒤, 뒤의 오는 첫소리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변해 [닥만→당만]으로 발음된다.

④ ‘삶아’의 겹받침 ‘ㅁ’의 앞 자음은 받침으로, 뒤 자음은 뒷말의 첫소리로 이어져 [살마]로 발음된다.

⑤ ‘뭇까지[목까지]’의 겹받침 ‘ㄷ’은 앞 자음 소리만 발음된다.

7. ㄴ의 ‘낱아야[나아야]’와 ‘ㅁ’의 ‘닿았다[다알파]’에서 받침 ‘ㅎ’은 발음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또한 ㄷ의 ‘놓고[노코]’에서 받침 ‘ㅎ’은 발음할 때 뒤에 이어지는 ‘ㄱ’과 결합하여 [ㅋ]으로 소리 난다.

8. ‘값을’은 [갑쓸]로 발음된다.

9. ⑤는 ‘되+어’의 줄임 표현이므로 ‘돼’로 표기해야 한다.

10. 모음을 줄여 쓸 때 ‘-ㄴ’ 뒤에 ‘-ㄴ’이 오면 ‘내’로 적는다.

ㄴ + -ㄴ → 내	되+어 → 돼 / 뵈+어 → 뵈 / 씌+어 → 썬 / 괴+어 → 괴
ㄴ + -ㄴ → 났	되+었다 → 났다 / 뵈+었다 → 뵈었다 / 씌+었다 → 났다 / 괴+었다 → 났다

11. ⑤의 ‘웬 일이야?’는 문맥상 ‘어찌 된 일이야?’의 뜻이므로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인 ‘웬’을

사용하여 ‘웬 일이야?’와 같이 쓰는 것이 맞다. ‘웬’은 홀로 쓰이지 않고 ‘지’와 함께 ‘웬지’라는 부사로 쓰여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뜻을 나타낸다.

12.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비해,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 ‘의외인데?’에 사용된 종결 어미 ‘-ㄴ데’는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은 엄마가 말한 내용을, ⑥는 친구가 한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결정하셨대.’, ‘영리하대.’로 써야 한다.

④, ⑤ ④와 ⑤는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데’를 써야 한다.

13. ‘낫다’는 ‘-을까’가 붙어 형태를 바꿀 때 ‘ㅅ’이 없어서 ‘나을까’가 된다.

14. ㉠은 ‘바라’를 잘못 표기한 말이다. ①~④는 모두 같은 표기 오류를 보이고 있으나 ⑤는 색이 변했다는 뜻의 ‘바래다’로 사용된 것이므로 잘못 표기된 예가 아니다.

15. ‘깎두기’는 ‘깎두기’로 써야 맞다.

오답 해설

‘육개장’, ‘떡볶이’, ‘갈치조림’, ‘주꾸미 볶음’이 바른 표기이다.

16.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17.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은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18. 문장 간의 연결을 검토하는 것은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④는 글 전체 수준, ③, ⑤는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해당한다.

19. (나)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을 운동 부족에서, 그리고 운동 부족의 원인을 운동 공간 부족에서 찾으면서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운동 공간 확보를 주장하는 글이다.

20. <보기>는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않다. ‘비록’은 ‘-

르지라도, ‘-시마는’과 같은 어미가 붙는 용언과 함께 쓰이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장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은 ㉠이다. ㉠의 ‘좀처럼’은 ‘~하지 않다’와 같이 부정문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해야 자연스럽다.

21. ‘대가’가 올바른 표기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22. ㉠의 내용은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운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나)의 주제와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23.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고심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4. 발자크가 글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손질한 덕에 그의 소설은 어느 작품보다 사실적이고 재미있으며 생동감이 넘쳤다고 했다. 이처럼 (나)의 마지막 두 문장은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연결하는 접속어로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리하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3. 1문단 마지막 문장을 삭제한다.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4. • ‘비민 이’를 ‘비만 인구가’로 고쳐야 한다. 문맥상 살이 찌서 몸이 뚱뚱한, 즉 비만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므로 ‘비만 인구 가’로 고쳐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 ‘높이고’를 ‘높이고’로 고쳐야 한다. ‘높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를 넣어 타동사로 만든 것이 ‘높이다’이기 때문이다.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1. ‘하늬바람’의 ‘늬’와 ‘희미하다’의 ‘희’는 [니]와 [히]로 발음된다. 이를 통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늬’는 [ㄴ]로만 발음됨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단어의 발음을 통해 ‘ㄴ’의 발음 규칙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받침 뒤에 다른 말이 이어질 때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말, 즉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경우에는 ‘숲에 → [수페]’처럼 받침의 원래 소리가 뒷말로 이어져 발음된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를 지닌 말이라면 ‘숲 안 → [숲안] → [수반]’처럼 먼저 대표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 뒤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가 된다.

평가 요소	확인(✓)
받침 뒤에 모음으로 이어지는 말이 실질적 의미를 지닌 경우와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바르게 서술하였다.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은 말이 이어질 때 받침의 원래 소리가 뒷말로 이어져 발음됨을 서술하였다.	
실질적 의미를 지닌 말이 이어질 때 받침이 먼저 대표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로 발음됨을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본래 받침 ‘ㄹ’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ㄹ’은 [ㄹ], ‘ㄹ’은 [ㄹ]로 발음하는 것이지만, ‘ㄹ’과 같은 용언의 ‘ㄹ’은 활용을 할 때 ‘ㄹ’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또한 받침 ‘ㄹ’은 본래 [ㄹ]로 발음하는 것이지만 ‘ㄹ’의 ‘ㄹ’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와 ‘ㄹ’죽하다와 ‘ㄹ’등글다, ‘ㄹ’적하다’는 예외적으로 ‘ㄹ’을 [ㄹ]로 발음한다.

농술형 평가 대비하기

132~133쪽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1. (1) [하니바람], [히미하다] (2)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는 [ㅣ]로 발음한다. 2.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질 때 그 말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말이면 받침의 원래 소리가 뒷말로 이어지고, 실질적 의미를 지닌 말이면 받침이 먼저 대표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 뒤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가 된다. 3. •겹받침 ‘ㄹ’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지만, ‘말다’와 같은 용언의 ‘ㄹ’은 활용을 할 때 ‘ㄱ’ 앞에서 [ㄴ]로 발음한다. •겹받침 ‘ㅃ’은 본래 [ㄴ]로 발음하는 것이지만 ‘넉죽하다’와 ‘넉동글다’, ‘넉적하다’는 예외적으로 ‘ㅃ’을 [ㅍ]으로 발음한다. 4. 잘못된 표기는 ‘바래’, ‘바램’이다. ‘바라다’의 활용형은 ‘바라’, ‘바람’이기 때문이다.

(2) 쓴 글을 돌아보며

1. <보기>는 (다)와 (라)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진정한 까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라)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나)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단이므로 '자기 수양' 즉 도덕적인 성장을 위해 공부를 한다

평가 요소	확인(✓)
'맑고'의 발음을 겹받침 'ㄹ'의 본래 발음 방법과 비교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넓죽한'의 발음을 겹받침 'ㅈ'의 본래 발음 방법과 비교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4. '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바라다'이다. '바라다'의 활용형은 '바라, 바라니, 바람'이므로 '바래'나 '바렘'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평가 요소	확인(✓)
자막에서 잘못된 표기를 모두 찾았다.	
표기가 틀린 이유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쓴 글을 돌아보며

1. <보기>에서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므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공부가 미래의 가장 좋은 대비가 된다는 (라)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근거가 된다.

평가 요소	확인(✓)
<보기>의 글이 들어가 위치를 바르게 지적하였다.	
<보기>의 글이 들어갈 위치를 지적한 이유를 내용용 근거로 하여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두 번째 문장은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한다는 내용이어서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평가 요소	확인(✓)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지 않아 삭제해야 할 문장을 바르게 찾았다.	
근거를 들어 삭제해야 할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글 전체 수준의 고쳐 쓰기에서는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고, 글을 쓴 목적을 확인하면서 주제, 제목, 구성 단계 등을 점검한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그 밖에도 청소년들은 척추염급음증이나 각종 전염병에도 취약한 상태이다.'는 '청소년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운동 공

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요소	확인(✓)
글 전체 수준에서 점검할 사항으로 고칠 곳을 찾았다.	
고칠 곳을 찾아 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4. 문장 수준의 고쳐 쓰기에서는 문장의 호응,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거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표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단어 등을 점검한다.

- 현대에 비만한 사람, 즉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는 뜻이므로 '비만 인구가'로 고쳐야 문맥에 맞는 표현이다.
- '높다'라는 형용사에 사동 접사 '-이-'를 넣은 '높이다'가 바른 표현이다. 사동 접사 '-히-'를 넣은 '높히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평가 요소	확인(✓)
문장 수준에서 고쳐 써야 할 2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썼다.	
고쳐 쓴 이유를 근거를 들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4 함께 만드는 의미

(1) 듣고 말하며 나누기

국문 확인 문제

171~178쪽

1. ③ 2. 아들의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이다. 3. ⑤ 4.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5. ② 6. 전 세계의 어른들에게 세계의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7. ⑤ 8. ⑤ 9. ②

1. 아버지와 상우(아들)는 대관령 밤길을 걸으며 우정의 참돔과 친구를 사귀는 기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의 과정에서 우정과 친구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대화의 결과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설득은 한쪽 편이 반대편에게 자기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대화의 목적을 설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아버지는 상우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다시 질문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문을 통해 아들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보여 준다.
3. 아버지는 상우와의 대화에서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마음속에 다시 커다란 우정이 쌓이는 거란다.'라고 이야기한다. 즉 아버지는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우정은 다시 커다랗게 쌓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상우와 공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아버지와 상우의 대화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 ③ 아버지는 상우와의 대화에서 '친구를 가려 사귀기는 하되 절대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친구를 차별하여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친구를 골라 사귀어야 우정이 빛이 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아버지는 상우와의 대화에서 '무얼 꼭 크게 도와주고 힘든 일을 해 주어야만 좋은 친구인 것이 아니라'고 말

한다. 따라서 큰 도움을 주거나 힘든 일을 해 줄 때 우정이 비로소 생겨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화를 통해 서로 의미를 공유하였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친밀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지식 참고 -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

일방적인 의사 전달과 이해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아니다.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이 상호 교섭함으로써 의미를 창조해 가는 협력의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에는 상대의 표현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다. 상호 작용은 한 사람의 언어적 행위가 다른 사람의 언어적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앞서 말한 사람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피드백을 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 연설은 공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말하기의 유형이다. 따라서 연설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말하는 이인 연설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은 연설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말하는 이는 에코의 대표인 열두 살 소녀 세번 스즈키이고, 듣는 이는 유엔 환경 개발 회의의 참석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다.
- ③ 리우의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④ 선진국의 어른들이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다.
6. 이 연설의 직접적 대상은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 참석한, 각국을 대표하는 어른들이다. 연설자는 이들에게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연설의 목적은 연설의 마지막 문장인 '제발 저희의 바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말

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7. 이 연설에서 세번 스즈키는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세계 전역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죽어 가는 수 많은 동물들을 위하여 연설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환경 보존과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어른들을 설득하여 어른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공적인 성격을 지닌 말하기이다.
② 듣는 이는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다.
③ 말하는 이는 에코의 대표인 열두 살 소녀이다.
④ 말하는 이인 연설자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연설이다.

지식 창고 - 설득 연설

말하는 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연설을 설득 연설이라고 한다. 선거 유세,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연설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한 강의나 강연, 재미를 위해 많은 사람 앞에서 재담을 펼치는 것과는 구별된다.

8. 연설을 들을 때에는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이 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연설이 끝난 후에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 창고 - 좋은 듣기 태도

-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자 함.
- 말하는 이보다는 말하는 내용 자체에 신경을 씀.
- 말하는 이의 말을 넘겨짚기에 앞서 끝까지 들음.
- 중심 생각, 원리, 개념에 귀를 기울임.
- 구조를 생각하면서 2, 3분 단위로 메모함.
- 듣는 동안 긴장을 풀지 않고 주의를 집중함.
- 주의 산만 요인을 제거하려고 함.
- 어려운 내용을 듣기 위해 학습함.
- 내가 어떤 표현에 신경 쓰는지 알고,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함.
-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고, 대조하고, 요약하고, 비판하며 들음.

9. 환경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 실제로 이 연설에서 말하는 이는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여러분', 즉 부유한 나라인 선진국의 어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은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184~187쪽

1. ④ 2. ① 3. ③ 4. 아버지와 아들(상우)이 대관령의 밤길을 걸으며 우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5. ④ 6. ① 7. ⑤ 8. 우정이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신체적 수고를 아끼지 않고 친구를 돕는 것이다. 9. ④ 10. ④ 11. ⑤ 12. 오존층이 파괴되고, 병에 걸린 물고기가 발견되었으며, 야생 동식물이 멸종되고, 숲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13. ④ 14. ② 15. ③ 16. (부유한 나라의) 어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하여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 상우와 아버지는 친구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정이나 진정한 친구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 상우와 아버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의미를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상우와 아버지는 각자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우정에 관한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③ 아버지는 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상우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우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없다.
⑤ 상우와 아버지는 각자 알고 있는 것이나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견해에 맞춰 상대를 설득하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아버지는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함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라고 말했을 뿐, 친구의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무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라)에서 아버지는 ‘친구란 내가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믿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③ (라)에서 아버지는 ‘당장 어렵거나 외롭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④ (라)에서 아버지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 얘기를 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너희처럼 자라날 때는’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함께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나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으며 좋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친구가 좋은 친구임을 유추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아버지는 익현이 아저씨를 ‘4대에 걸친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며 집안 간에 교류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3. 상우는 (나)에서 아버지가 익현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와.’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그럼 백 년도 더 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말에 맞추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가)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상우’와 ‘아빠’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많이 어두워졌지?’, ‘별도 하나들 보이고요.’라는 말에서 시간대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몇 굵이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내려가야 할 대관령은 다 내려가는 거야.’라는 말에서 대관령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라)에서 친구나 우정을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아버지는 상우에게 자신의 친구인 성률이 아빠와 기한이 아저씨에 관한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평범한 일상 생활의 소재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성률이 아빠와 (나)의 기한이 아저씨에 관한 일화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준다.

② (가)~(다)는 모두 상우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③ 상우와 아버지는 진정한 친구와 우정에 관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⑤ 아버지는 우정의 참뜻과 진정한 친구에 관한 지혜를 아들에게 전하고 있다.

6. 상우와 아버지는 친구에 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정에 관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우정의 참뜻과 친구를 사귀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상우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우정의 의미에 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다)에서 상우가 우정에 관해 아버지와 공유하게 된 생각을 찾아보면, 우정은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다시 커다랗게 쌓이는 것이며, 차별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우정은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는 생각 등이 있다.

7. 이 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통해 우정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다. 대화의 과정에서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8. 기한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이사를 하면 나중에 와서 전 기선도 달아 주고 상우 책상도 손봐 주는 친구이다. 그리고 기한이 아저씨가 내기를 걸었을 때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기한이 아저씨에게 간 일화를 통해 아버지는 ‘몸으로 때워 주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또 좋은 친구도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한이 아저씨를 통해 아버지는 우정이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신체적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것임을 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9. 연설은 대화와 달리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입장을 바꿔 가며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10. 이 연설에서 동식물의 멸종은 (나)에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은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에 해당한다. (나)~(바)에서 연설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바)에 나타난 연설의 주제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가)의 자기소개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라)의 ‘여러분은 정부의 대표로, ~ 누군가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라)의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11. 말하는 이가 자신은 어린아이일 뿐임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12. 지구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나)와 (다)에 제시되어 있다. (나)의 ‘오존층의 구멍 때문에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에서 오존층 파괴를, ‘암에 걸린 물고기들을 발견했습니다.’에서 병에 걸린 물고기의 발견을, ‘날마다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있다는 소식’에서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근거로 들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의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에서 푸른 숲의 사막화를 근거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연설과 같은 설득적 말하기를 들을 때에는 비판적 듣기의 방법이 요구된다. 말하는 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적절한지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말하는 이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져 가며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 창고 – ‘설득적 말하기’를 듣는 방법

- 말하는 이의 주장에 모순이 없으며 타당한지 판단한다.
-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지를 따져 본다.
-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칠 때의 논증 방식은 올바르게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검토한다.
- 목적이나 의도가 정의에 맞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14. 이 연설은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루는 문제는 환경 문제, 빈곤 문제 등 전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중대한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진지하고 정중하고 엄숙한 태도로 연설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설에서는 이런 비유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마)에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른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아무것도 ~ 인식할까요?’와 (다)의 ‘그런데 ~ 하십니까?’에서 질문을 통해 어른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어른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④ (라)에서 말하는 이는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이유’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책 마련이라는 회의의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듣는 이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⑤ (가)에서 말하는 이는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근거로 들어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생동감 있게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6. 이 연설이 이루어진 회의는 각국 정부 대표가 모여 환경 문제를 비롯한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는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나)에서 ‘전쟁에 쓰이는 모든 돈이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멋진 곳으로 바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마)에서 ‘제발 저희의 바람이 여러분의 행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 부유한 나라의 어른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하여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흑설 공주

꼭꼭 확인 문제

191~203쪽

1. ③ 2. ⑤ 3. ② 4. ② 5. 원작의 주인공은 하얀 피부를 지닌 백설 공주이고, 이 글의 주인공은 검은 피부를 지닌 흑설 공주이다. 6. ⑤ 7. ② 8. ① 9. ② 10. 아름다운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③ 12. ① 13. ② 14. ⑤ 15. 첫째, 공주를 죽이려고 한 자신의 음모가 드러날 수 있고, 둘째, 공주가 살아 있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6. ③ 17. ④ 18. ⑤ 19. 왕비는 공주를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20. 공주가 해독제에 의해 다시 살아날 것이다. 21. ③ 22. ① 23. 흑진주 24. ② 2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흑설 공주가 죽었기 때문이다. 26. ③ 27. ① 28. ② 29. ④ 30. 나무꾼이 흘린 눈물에 책에 묻은 해독제가 녹아 공주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 공주를 살렸다. 31. ③ 32. ⑤ 33. ② 34. ④ 35.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거든.

1. 「흑설 공주」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널리 알려진 동화인 「백설 공주」를 창의적·비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글쓴이가 아름다움에 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작품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의 갈래는 비평문이 아니라 소설(동화)이다.
 ② 이 글은 원작 「백설 공주」의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한 작품이다.
 ④, ⑤ 이 글은 원작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원작을 비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후 원작과는 다른 주제를 담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2. 검은 눈이 내리는 장면은 원작에는 없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작가가 새롭게 상상하여 넣은 것이다.
 3. ㉠은 왕비의 소망이 표현된 부분이다. 검은 눈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 검은 피부를 지닌 아기를 낳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4. 하얀 피부를 지닌 백설 공주에게서 새까만 피부를 지닌 아기가 태어나자 시녀들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왕비는 자신의 소망대로 검은 아기가 태어나자 무척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다. 왕비는 시녀들과 달리 진심으로 딸의 탄생을 기뻐하며 딸을 사랑하고 있다.

5. 원작의 주인공인 백설 공주와 이 작품의 주인공인 흑설 공주는 둘 다 왕비의 소망대로 태어난 딸이다.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부색에서 차이를 보인다. 백설 공주는 하얀 피부를, 흑설 공주는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다.
 6. 흑설 공주는 아버지를 비롯해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지낸다. 하지만 스스로 가출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7. ㉡에서 흑설 공주는 ‘무엇에도 욕심이 없는 공주였지만 그 하얀 망토만은 절대로 몸에서 떼어 놓는 법이 없었다. 따라서 하얀 망토에는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떤 물건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8. 공주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 백성들과 아버지, ㉣의 궁궐의 시녀들이 공주를 대하는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공주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주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③ 공주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④ ㉢에서 아버지인 왕은 ‘어째서 백설 공주의 딸이 흑설 공주가 되었던 말인가?’라고 한탄하며 검은 피부를 지닌 딸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즉 검은 피부 때문에 공주는 아버지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주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살빛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이다.
 ⑤ ㉡에서 공주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에 길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즉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진 것이지, 자신 없는 태도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9. ‘하얀 망토’는 어머니인 백설 공주가 떠 준 것이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준 어머니가 떠 준 하얀 망토를 통해 공주는 위로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실제로 공주는 하얀 망토를 품에 꼭 안고 자면, ‘엄마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아늑한 행복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하얀 망토는 어머니에 대한 공주의 그리움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10. 4에서 백성들은 ‘임금님도 왕비님도 모두 고귀한 하얀 피부를 갖고 계신데, 어쩌서 공주는 저렇게 온몸이 새까맣지? 어유, 보기 싫어라!’라고 말한다. 아버지인 왕 역시 ‘어쩌서 백설 공주의 딸이 흑설 공주가 되었던 말인가? 비록 내 딸이지만 사랑스럽지가 않구나.’라고 말한다. 6에서 궁궐의 시녀들 역시 ‘흑설 공주 앞에서는 자신의 하얀 피부를 뽐내며 공주를 무시하기 일쑤였다.’라고 나와 있다. 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은 하얀 피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공통된 생각을 읽어 낼 수 있다.

11. 9에서 왕비는 자신이 직접 나서 흑설 공주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늙수그레한 장사꾼 영감처럼 모습을 바꾸고 공주가 있는 집을 찾아간다.

오답 해설

① 9에서 왕비는 자신을 속인 사냥꾼을 잡아들이려고 했으나, 사냥꾼이 이미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왕비는 공주의 거처를 8에 나오는 거울을 통해 확인한다.

② 7에서 왕비는 ‘왕을 설득하여’ 공주를 성 밖으로 내보낸다.

④ 7에서 공주를 돕는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 공주’에 나왔던 일곱 난쟁이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다.

⑤ 7에서 공주는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냥꾼의 동정’으로 목숨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12. 7과 8에서 왕비는 거울로부터 흑설 공주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9에서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왕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13. 이 글의 주인공은 흑설 공주이다. 왕비는 흑설 공주를 해치려는 인물로, 공주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인 흑설 공주를 돕는 인물은 일곱 난쟁이들로, 사냥꾼의 동정으로 겨우 목숨을 구한 공주와 함께 지내는 인물들이다.

14. 8에서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흑설 공주라는 진실을 왕비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공주가 사는 곳이 ‘일곱 개의 산 너머 일곱 난쟁이 집’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에 공주의 거처를 알게 된 왕비는 공주를 직접 죽이러 가게 된다. 따라서 거울은 공주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공주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15. 9에서 왕비는 흑설 공주가 살아 있으면, 자신이 공주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리고야 말 것이라고 걱정하며, 자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16. 10~11은 책 장수 영감으로 변장한 왕비가 공주에게 접근하는 내용이고, 12는 왕비가 공주가 펼쳐 둔 책에 독과 해독제를 바르는 내용이며, 13은 왕비가 책에 바른 독에 의해 공주의 숨이 끊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10~12는 13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중심 사건은 13에 해당한다.

17. 원작에서는 왕비가 독 사과로 공주를 죽이는데, 이때 왕비는 독만 바르지 해독제는 바르지 않는다. 반면 이 글에서는 12에 나오듯이, 책에 독을 바를 때 해독제도 함께 바른다.

오답 해설

① 10에서 공주가 난쟁이네 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혼자 사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원작과 이 작품 모두에서 공주는 일곱 난쟁이네 집에서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살아간다.

② 12~13에는 왕비가 공주를 죽이기 위해 책에 독을 바르고 그 독으로 공주가 쓰러지자 공주의 죽음을 거울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 공주를 죽이기 전에 왕비가 망설이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 원작에도 왕비는 사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주를 직접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공주를 죽이기 전에 망설이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0에서 ‘왕비는 독 사과 따위를 들고 가는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작에서는 사과에 독을 발라 공주를 죽인다.

⑤ 이 글에서 공주가 사과를 좋아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18. 13에서 공주는 영감으로 변장한 왕비가 선물한 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다. 책 읽기에 빠져 있는 공주에게서 책 장수 영감에 대한 의심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10에서 공주는 현책을 파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놓여 문을 열어 준다. 이를 통해 책 장수가 혹시 왕비가 아닐지 의심했다가 남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왕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11에서 공주는 왕비가 펼쳐 보이는 책에 자신이 살았던 왕궁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책을 받아 든다. 자신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책을 빨리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④ 11에서 공주는 왕비가 물 한 잔만 주면 책을 선물로 주겠다는 말에 기뻐서 물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간다. 왕비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책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얼른 물을 가지러 간 것이다.

19. 왕비의 웃음은 공주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왕비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왕비가 공주를 찾아온 목적이 공주를 죽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목적을 달성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20. 해독제는 몸 안에 들어간 독성 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약이다. 공주가 펼쳐 둔 페이지에 독을 바른 후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를 발랐다는 것은, 그 해독제가 공주를 살리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21. 14는 공주를 죽이고 온 왕비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임을 거울로부터 확인받고 기뻐하는 내용이다. 15~17은 일곱 난쟁이들이 공주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몹시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 관에 안치하고 공주의 관을 지키는 내용이다. 따라서 14~17의 기본적인 내용은 원작과 달라진 점이 없다. 하지만 16에서 난쟁이들이 공주의 관에 책을 함께 넣는 내용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다. 작품의 세부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15에서 난쟁이들은 공주가 쓰러진 것을 보고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공주의 허리띠도 풀어 보고, 머리에 빗이 꽂혀 있는지, 입안에 독 사과가 남아 있는지 다 뒤져’

본다. 그리고 16에서는 ‘예전에 백설 공주를 담았던 투명한 유리 관에 흑설 공주를 놓’힌다. 이 내용들은 모두 원작의 내용을 직접 드러낸 것으로, ‘예전의 일’이나 ‘예전에’가 모두 원작인 「백설 공주」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ㄷ. 15에서 난쟁이들은 공주의 숨이 끊어진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무척 슬퍼한다. 또한,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공주를 유리 관에 안치한다. 따라서 난쟁이들이 공주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책은 이 글에 등장하는 소재이다. 원작에는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죽은 것으로 나오며 공주의 관에 책을 함께 넣지도 않는다.

23. 16에서 글쓴이는 죽은 흑설 공주의 모습을 ‘흑진주처럼 영롱하게 빛이 나서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다.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흑설 공주의 모습을 ‘흑진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에 나오는, 공주가 죽기 직전 읽다 만 책의 펼친 쪽에는 공주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가 묻어 있다. 이 해독제를 죽은 공주 옆에 같이 넣었다는 것은, 이 해독제로 인해 공주가 살아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25. 15~17에는 난쟁이들이 공주가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하다가 공주를 유리 관에 넣어 숲속에 안치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공주가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흑설 공주가 사라졌으니 왕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원작의 왕자와 이 글의 나무꾼은 모두 숲을 지나다가 우연히 공주를 발견한다. 따라서 ㉢은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다.

27. 원작에서 왕자는 백설 공주의 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이 글의 나무꾼은 예전부터 흑설 공주가 지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모해 왔다. 이를 통해 참된 사랑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는 것임을 글쓴이는 전하고 있다.

28. 공주는 깨어나자마자 나무꾼이 아니라 나무꾼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그러자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

29. 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왕비의 사악한 음모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왕비를 징그럽게 느끼게 된다. 왕비의 추악한 내면을 보게 된 것이다.

30. 공주가 깨어나는 21에 나무꾼이 공주를 살린 방법이 나와 있다.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흘린 나무꾼의 눈물에 책장에 묻어 있던 해독제가 녹아 공주의 입으로 들어감으로써 공주는 살아나게 된다.

31. 이 부분은 소설 구성 단계상 결말에 해당한다. 결말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며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글에서도 공주와 왕비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왕비는 벌을 받게 되고, 공주는 나무꾼과 결혼하며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등장인물과 배경이 제시되며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것은 발단에 해당한다.
- ②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서서히 나타나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전개에 해당한다.
- ④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극도의 긴장이 형성되고 주제가 드러나는 것은 위기에 해당한다.
- ⑤ 갈등이 심화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주인공이 위협에 처하는 것은 절정에 해당한다.

32. 원작에는 백설 공주가 왕자와 결혼하고, 백설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글에서 흑설 공주는 나무꾼과 결혼한 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노력한다. 즉,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흑설 공주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낸다.

오답 해설

- ① 나무꾼과 공주의 결혼식에 대한 서술은 23의 '나무꾼과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라는 단 한 줄로 처리되어 있다.
- ② 24와 25에 거울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25에서 거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대답함으로써 이 글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아름다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흑설 공주가 사람들

에게 그 깨달음을 나누어 준다는 결말을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메리는 공주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글쓴이가 설정한 인물이다. 메리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다.

33. ㉠은 하얀 피부만 아름답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전 검은 피부를 아름답다고 여겨 검은 피부를 지니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아름다움의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34. 흑설 공주의 '큰 깨달음'은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24에서 공주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② 24에서 공주는 '아름다움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 ③ 24에서 공주는 '다른 사람들이 세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허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24에서 공주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다.

35. 25에서 공주는 거울에게 질문을 던진 후 거울이 한 대답을 되새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깨달음이 이 작품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려는 주제 의식을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엔 이렇게!!

204~209쪽

1. ② 2. ④ 3. ④ 4. 사냥꾼의 동정으로 목숨을 구한 공주는 일곱 난쟁이들과 함께 지낸다. 5. ③ 6. ④ 7. 아름다움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아름다움이 외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사람은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8.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사랑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한 것임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9. ② 10. ⑤

1. 새 왕비가 공주를 궁궐 밖으로 쫓아내고 공주를 죽이려고 한 것은, 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울의 말 때문이다.
2. 새 왕비가 공주를 죽일 때 책에 묻은 독을 이용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원작에서는 독 사과를 이용하여 공주를 죽인다.
3. 새 왕비는 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여 공주를 죽이는 등 공주와 갈등한다. 하지만 공주가 되살아나 새 왕비의 사악한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며 몰락한다.
4. 새 왕비가 사냥꾼을 시켜 공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공주는 사냥꾼의 동정으로 목숨을 구한 후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는 원작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다.
5. 흑설 공주는 검은 피부 때문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며 자라난다.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책을 좋아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왕은 자신의 딸이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딸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 ② 왕비는 새하얀 눈이 아니라 검은 눈과 같은 아름다운 아기를 낳기를 소망한다.
 - ④ 난쟁이는 원작에서 백설 공주를 도왔던 일곱 난쟁이의 자식들이다.
 - ⑤ 새 왕비는 마녀가 아닌 늙수그레한 장사꾼 영감으로 변장하여 공주를 직접 찾아간다. 그리고 마법의 책이 아니라 책에 묻은 독으로 공주를 죽인다.
6. 공주의 배우자는 평범한 나무꾼으로, 공주의 외모에 반한 것이 아니라 공주가 지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람들이 마녀라고 수군거리던 오래전부터 공주를 사모해 왔다.
 7. 이 소설의 왕비는 하얀 눈이 아니라 검은 눈을 아름답게 여기고, 검은 눈처럼 새까만 아기가 태어나자 무척 기뻐한다. 이 소설의 작가는 하얀 피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름다움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8. 단지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공주가 깨어나는 방법을 바꾼 것이다.
9. 사람들이 흑설 공주를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 이유는, 공주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0. 글쓴이는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동양의 기준과 서양의 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글쓴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아름다운 사람의 외모가 대체로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글쓴이의 입장에 반대된다.
- ② 패션 감각을 활용하여 체형을 보완함으로써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입장에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아름다움의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했으므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글쓴이의 입장에 반대된다.
- ④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글쓴이의 입장에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14~217쪽

1. ④ 2. ③ 3. ① 4.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책을 좋아한다. 5. ④ 6. ⑤ 7. 주인공을 해치려는 사람 8. 변장을 한 새 왕비에 의해 공주가 죽음. 9. ⑤ 10. ⑤ 11. ① 12. • 깨달: 공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가치: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인다. 13. ⑤ 14. ③ 15. 거울 16.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것 /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는 것 /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 모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등

1. 이 글은 꾸며 낸 이야기인 동화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갈래상 동화 또는 소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확인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원작에서도 백설 공주의 어머니인 왕비는 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찍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왕비가 일찍 죽어 공주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두 작품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3. 왕비는 하얀 피부만 아름답다고 느끼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검은 눈을 아름답게 느끼고 검은 눈처럼 새까만 아기를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검은 피부를 지닌 흑설 공주가 태어나자 무척 기뻐한다.

오답 해설

- ② 시녀들은 새까만 공주가 태어나자 비명을 지르며 당황하는데 이는 까만 피부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 ③ 백설들은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까만 피부를 가진 흑설을 보기 싫어한다.
 - ④ 왕은 하얀 피부를 지닌 어머니가 까만 피부를 지닌 딸을 낳은 것을 한탄하며 까만 피부를 지녔다는 이유로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
 - ⑤ 흑설 공주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 공주의 자신감 없는 태도를 통해 까만 피부는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을 공주 역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원작의 주인공인 백설 공주와 이 글의 주인공인 흑설 공주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흑설 공주는 백설 공주와 달리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으며, 그 피부색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5. 이 글에서 왕비가 공주를 죽일 때 사용한 소재는 독을 바른 책이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독을 바른 사과를 이용하여 죽인다.

오답 해설

- ① 작품의 주인공은 둘 다 공주이다.
- ② 작품의 갈래는 둘 다 동화(소설)이다.
- ③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왕궁과 난쟁이들의 집, 숲속 등 원작과 유사하다. 이 작품의 배경이 우리나라라

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⑤ 작품의 시점은 둘 다 전지적 시점이다.

6. (라)에서 손거울은 공주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손거울을 공주의 코끝에 대 보았으나 김이 서리지 않자 왕비는 공주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다.
7. 왕비는 주인공인 공주와 갈등하는 인물로 공주를 죽이기 위해 영감으로 변장하여 공주의 집을 직접 찾아가간다. 따라서 왕비는 주인공을 해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주인공’은 흑설 공주이다. 그리고 (가)~(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공을 돕는 사람’은 일곱 난쟁이들이고, ‘주인공을 되살리는 사람’은 나무꾼이다.

8. (가)~(라)는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흑설 공주를 왕비가 직접 찾아가 죽이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9. (라)에서 나무꾼은 공주가 읽다 만 책을 발견하고는 그 책을 읽다가 공주가 느꼈을 아픔을 떠올리며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책에 묻은 해독제를 녹이면서 공주의 입안으로 들어가 공주는 살아나게 된다.
10. (마)에서 공주가 깨어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만, 공주가 나무꾼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나)~(라)에 서술된 나무꾼의 사랑을 통해, 공주 역시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자신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한 나무꾼의 진심을 알고 나무꾼을 사랑하게 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11. ㉠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공주의 허리띠도 풀어 보고, 머리에 빗이 꽂혀 있는지, 입안에 독 사과가 남아 있는지 다 뒤져 보았’다는 난쟁이들의 행동은 모두 원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왕비가 백설 공주를 죽이기 위해 취한 세 번의 공격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② 나무꾼도 공주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며 주로 책을 벗 삼아 생활했다는 것으로 보아 공주가 느꼈을 외로움(괴로움)을 나무꾼은 이해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궁궐의 작은 도서관 등에서 숨어 지내며 책을 즐겨 읽었기 때문에 책을 마음껏 읽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③ 나무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맞춤을 해 보고는 공주가 아무 반응이 없자 눈물을 흘린다. 따라서 나무꾼이 입맞춤을 한 것은 공주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공주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해 본 것이다.

④ 펼쳐진 책에는 독이 아니라 해독제가 묻어 있다. 실제로 이 펼쳐진 책을 읽으며 나무꾼이 흘린 눈물에 해독제가 녹아 공주를 살리게 된다.

⑤ ㉠은 공주가 눈을 떴을 때 나무꾼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았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을 뿐, 공주가 자신을 살린 사람이 나무꾼임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12. 공주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까닭은 바로 앞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공주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고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미소를 짓는다. 그러자 공주의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공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쓴이는 공주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다)와 (라)에서 공주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 그리고 공주의 노력으로 공주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백설 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는다. 따라서 글쓴이는 원작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공주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려지므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② 새 왕비는 공주를 해치려고 한 사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③ 새 왕비와 공주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④ 이 글에는 왕자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14. 이 글에서는 공주가 나무꾼과 결혼을 하였고, 그 이후에 공주는 사람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도와주

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주가 왕위를 계승하여 여왕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5. 이 글의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아름다운 존재가 흑설 공주라고 하자 왕비는 공주를 죽이려고 하며 갈등이 시작된다. 하지만 (라)를 보면,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대답을 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바꿈으로써 ‘거울’은 글쓴이의 창의적인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16. (다)와 (라)에는 이 글의 주제가 직접 드러나 있다. 그 중에서 (다)와 (라)에서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아름다움은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에서는 ‘아름다움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다’고 했고, (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20~223쪽

1. ④ 2. ③ 3. ③ 4. 우정이란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다. / 우정이란 친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것이다. 5. ③ 6. ③ 7. ⑤ 8. 듣는 이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듣는 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듣는 이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9. ① 10. ⑤ 11. ③ 12. 공주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3. ① 14. ③ 15. ③ 16. 사람들 모두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음을 알려 주고자 한다. /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1. 이 글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정과 진정한 친구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들과의 일화를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우정의 참뜻과 친구를 사귀는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2. 아버지의 질문은 (가), (나), (라)에 나온다. (가)에서 익현이 아저씨를 아느냐고 질문한 것은, 화제에 대한 아들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나)에서 ‘성물

이 아빠가 뭐랬는 줄 아니?’라고 질문한 것은, 아들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아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며, (라)에서 ‘알았지?’라고 질문한 것은 친구를 차별해서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한 것은 없다.

3. (라)에서 아버지는 ‘친구를 가려 사귀기는 하되 절대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의 성룡이 아빠는 아버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신체적 힘들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 ㉠의 기한이 아저씨도 아버지가 이사할 때마다 와서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두 친구의 모습을 통해 우정이란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바)에서 말하는 이는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며’라고 묻는다. 여기에서 이 연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회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듣는 이는 ‘정부의 대표, 기업가, 기자나 정치가’라는 사실과 연설의 내용이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 같은 사회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공식적인 회의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바)에서 말하는 이는 ‘저희는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어른이 아니라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이가 말하는 이임을 알 수 있다.
- ② (다)에서 듣는 이는 ‘정부의 대표, 기업가, 기자나 정치가’라고 나와 있다.
- ④, ⑤ 이 연설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인 각국의 대표(어른)에게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6. (가)에서 말하는 이는 빈곤 문제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연설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다)에서는 더 이상 환경을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설을 듣는 청중이 환경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방

법을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이가 전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7. ㉡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자원을 나누려 하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빈곤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환경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8. ㉢에서는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고, ㉣에서는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잘못을 직접 꼬집어 알려 주기보다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한 말하기 방식을 통해 듣는 이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다.
9. 이 글은 원작 「백설 공주」를 비판적, 창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작품이다. 하얀 피부를 지닌 백설 공주만 아름답다고 보는 생각에 비판을 제기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주인공인 흑설 공주는 책을 좋아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달아 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공주를 구한 남자도 왕자가 아닌 평범한 나무꾼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등에 변화를 주었다.
- ③ 공주의 성장 과정이나 죽은 공주가 깨어나는 과정 등의 세부 이야기 요소에 변화를 주었다.
- ④, ⑤ 글쓴이는 하얀 피부뿐만 아니라 검은 피부도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아름다움의 의미를 재정의하여 재구성된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10. (마)에서는 나무꾼의 눈물에 녹은 해독제가 공주의 입안으로 들어가 공주가 깨어나고, 눈을 뜬 공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중심 사건은 공주가 나무꾼의 눈물에 의해 깨어난 것과 깨어난 공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중심 사건은 ‘왕비는 살빛이 검은 흑설 공주를 낳고 세상을 떠남.’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② (나)의 중심 사건은 ‘공주는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하

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책을 좋아하게 됨.’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 (다)의 중심 사건은 ‘왕비가 흑설 공주를 직접 죽이기 위해 난쟁이의 집을 찾아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④ (라)의 중심 사건은 ‘공주는 왕비가 책에 바른 독에 의해 숨이 끊어짐.’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 원작 「백설 공주」에서도 새 왕비는 백설 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여 공주를 직접 죽이기 위해 나선다.

오답 해설

① 원작의 백설 공주는 하얀 피부를 지니고 있다.

② 원작의 백설 공주가 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④ 원작의 백설 공주는 독 사과를 먹고 죽는다. 따라서 책장에 묻은 독을 손가락에 묻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⑤ 원작에서 백설 공주는 왕자의 입맞춤으로 인해 깨어난다.

12.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던 흑설 공주가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진 이유는 (마)에 나오듯이, 흑설 공주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죽은 공주가 깨어나면서 나무꾼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신도 아름다운 사람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13. (마)에서 공주가 얻은 ‘큰 깨달음’은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하려는 가치를 집약하여 보여 준다. 공주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으며,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글쓴이는 아름다움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임을 독자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14. (다)에서 일곱 난쟁이가 공주의 죽음을 확인하고 슬퍼하는 것은 원작인 「백설 공주」에도 나오는 공통된 내용이다.

15. (다)에서 난쟁이들이 공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공주의 허리띠도 풀어 보고, 머리에 빗이 꽂혀 있는지, 입안에 독 사과가 남아 있는지 다 뒤져 보’는 행동을 한다. 이 행동은 원작에 나오는 내용이다.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씌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이 작품이 재구성된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16. 흑설 공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글쓴이는 우리도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흑설 공주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누구나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24~225쪽

(1) 듣고 말하며 나누기

1. (가)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상호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로 사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나)는 연설자가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연설로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2. 아버지는 ㉠의 질문을 통해 아들의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성실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들은 ㉡의 질문을 통해 아버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궁금한 것을 물어봄으로써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 오존층이 파괴되고, 강이 오염되고, 야생 동물이 멸종되고, 숲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 흑설 공주

1. 왕비의 바람대로 새까만 공주가 태어났지만, 공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2. 원작의 왕자는 공주의 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마)의 나무꾼은 오래전부터 공주의 괴로움을 알고 공주를 사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글쓴이는 진정한 사랑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다. 3. 하얀 피부를 지닌 사람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1) 듣고 말하며 나누기

1.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친구를 어떤 기준으로 사귀어야 하느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적 성격의 대화이고, (나)는 스스로를 ‘어린이’라고 밝힌 연설자가 ‘정부의 대표, 기업, 기자나 정치가’와 같은 어른들 앞에서 설득을 목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공적 성격의 연설이다.

평가 요소	확인(✓)
(가)의 유형인 '대화', (가)의 성격인 '사적 성격'을 모두 밝혔다.	
(나)의 유형인 '연설', (나)의 성격인 '공적 성격'을 모두 밝혔다.	
'반면에'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은 아버지가 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기 위해 아들이 던진 질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맞추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한 것이다. 따라서 아들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에 담긴 말하는 이의 의도와 아버지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서술하였다.	
㉡에 담긴 말하는 이의 의도와 아들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서술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나)의 첫 문단에서 말하는 이는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방법, 죽은 강으로 연어를 다시 돌아 오게 할 방법, 사라져 버린 동물을 되살려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오존층 파괴, 강의 오염, 야생 동물의 멸종, 숲의 사막화 등의 실례를 바탕으로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둘째 문단에서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에 들어갈 환경 오염의 실례 4가지를 서술하였다.	
㉣에 들어갈 환경 문제 해결 촉구라는 주장을 서술하였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흑설 공주

1. (가)와 (나)는 소설 구성 단계상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가)는 왕비의 바람대로 검은 피부를 지닌 공주가 태어나는 내용이고, (나)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공주가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내용이다.

평가 요소	확인(✓)
(가)의 중심 사건인 '왕비의 바람과 살빛이 검은 공주의 탄생'을 서술하였다.	
(나)의 중심 사건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공주'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마)의 나무꾼은 오래전부터 흑설 공주를 사모해 왔고, 공주가 겪었던 괴로움을 나무꾼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원작의 왕자가 공주의 미모를 보고 첫 눈에 반한 것과 대조된다. 재구성 과정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글쓴이는 진정한 사랑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임을 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원작의 왕자와 (마)의 나무꾼의 차이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차이를 통해 글쓴이가 전하려는 바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차이점과 글쓴이가 전하려는 바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 <보기>에서 글쓴이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의 시녀들이 보이는 행동과 ㉡의 백성들의 말은 바로 이러한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공주의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공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주를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 글쓴이는 하얀 피부를 지닌 사람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 즉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요소	확인(✓)
<보기>를 통해 아름다움의 기준은 변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였다.	
㉠과 ㉡에 나타난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을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5 이해를 돕는 매체

(1) 명태의 귀환

국문 확인 문제

235~243쪽

1. ④ 2. ④ 3. ① 4. ③ 5. 우리 식탁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기 있는 생선으로,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되기 때문이다. 6. ④ 7. ④ 8. ⑤ 9. ② 10. 어린 명태까지 마구 잡기로 잡은 것, 기후 변화로 동해의 표층 수온이 상승한 것 11. ② 12. ③ 13. ⑤ 14. 명태 완전 양식에 필요한 수정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명태 어미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명태가 살기에 알맞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저온성 로티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 ② 21. ③ 22. ③ 23. 인공적으로 양식한 명태가 자연 상태에서 잘 적응해 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이 글은 동해에서 사라졌던 국산 명태를 인공 양식을 통해 복원에 성공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도표, 그림, 도해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③에서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생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다른 외국에서는 명태를 어묵을 만들거나,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 소스에 묻혀 먹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①, ②에서 우리 국민이 명태를 생태탕, 코다리찜, 명란젓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②에서 잡은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명태를 ‘생태’, 꽁꽁 얼린 명태를 ‘동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③ ①에서 ‘국민 생선’인 명태가 안타깝게도 2008년 이후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③에서 명태 요리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우리의 입맛에 딱 맞아 ‘국민 생선’이라 해도 손색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3. ②에는 코다리찜, 노가리의 사진이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진 자료는 명태 요리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 ①은 이 글이 기사문임을 고려할 때 전문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우리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태가 2008년 이후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최근 명태 인공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5. ①~③의 내용에서 명태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다양한 요리로 식탁에 오르는 인기 있는 생선이고, 그래서 한 해에 25만 톤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소비하는 생선이므로 ‘국민 생선’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 글에서는 주요 단락에 소재목을 붙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이런 소재목은 단락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다루어질 중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예측하며 읽기는 글의 내용 파악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
7. 이 글에는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를 활용한 그림 자료가 사용되었다. 도표 자료는 시청각 자료가 아니라 시각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① 특정한 기간의 주요 어종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② 도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③ 그림 자료는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의 변화를 특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도표 자료를 통해 주요 어종 어획량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8. 동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이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섭씨 0.93도가량 상승하면서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인 명태의 서식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9. ㉠에서 1980년대에는 동해에서 정어리나 명태가 주로 잡혔으나, 2000년대에는 오징어, 멸치 등이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1980년대에는 남해에서 주로 쥐치가 많이 잡혔고, 아열대성 물고기는 2000년대에 와서 많이 나타났다.
- ③ 2000년대까지 동해의 표층 수온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동해에서 냉수성 어종이 사라진 것이다.

- ④ 서해에서는 1980년대에는 주로 갈치가, 2000년대에는 주로 고등어가 많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 ⑤ 쥐치는 1980년대에는 남해에서 주로 잡혔으나, 수온의 변화로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많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5에서 명태가 사라진 이유를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명태가 사라진 이유는 먼저 어린 명태까지 마구 잡아서 그 어족 자원이 고갈된 탓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동해 연평균 표층 수온이 상승해 동해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명태의 서식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게 된 것도 그 원인이다.
11. 7에 완전 양식에 대한 뜻이 제시되어 있다. 완전 양식은 명태를 인공적으로 키워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키운다는 서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2. 6~9에서 활용하고 있는 매체 자료는 세 가지이다. 이 중 연구소에서 양식되고 있는 명태 치어 사진에서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명태 치어 사육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명태의 난 발생과 성장 발달 과정을 보여 주는 도해에서는 명태의 한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명태 완전 양식 과정이 나타난 표에서는 명태의 양식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이 표에 글쓴이의 의견이 덧붙여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으며 대상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하여 오래 기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13. 8에서는 건강한 수정란을 얻을 수 있는 명태 어미를 찾는 연구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 이때 포스터나 광고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살아 있는 명태 어미를 얻기 위해 현상금까지 내건 연구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
14. 국산 명태를 완전 양식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살아 있는 명태 어미를 잡아 수정란을 얻어야 한다. 그 수정란을 부화하게 한 후, 어린 고기를 건강한 명태 어미가 되도록 키워야 한다. 그러나 연구팀은 수정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명태 어미를 찾지 못해

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명태 어미를 찾아 나선 것이다.

15.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는 소제목을 통해 단락의 주요 내용을 예측하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시된 매체 자료에 담긴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나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을 필요도 있다. 글의 표면적 의미에만 집착하여 문자 하나하나를 읽기보다는 글의 문맥적 의미를 예측, 추리, 재구성하면서 읽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16. 12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에서 배양된 로티퍼는 약 섭씨 10도의 물에서 10% 이상 증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저온성 로티퍼가 대부분 증식했다는 진술은 사실에 어긋난다.
17. 이 글에 제시된 로티퍼 사진은 명태의 먹이생물인 로티퍼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글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 양식을 위해 연구한 내용은 명태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 수조의 병원체,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이다. 12에서는 저온성 로티퍼는 명태뿐 아니라 대구 등 다른 냉수성 어류를 사육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타날 뿐, 연구팀이 저온성 로티퍼를 이용해 대구와 같은 냉수성 어류를 사육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19. 연구팀은 명태의 먹이생물로 쓰는 로티퍼가 명태가 잘 살 수 있는 수온에서 활력을 잃고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온성 먹이생물 배양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를 통해 저온에서 적응하는 로티퍼를 골라 따로 배양해서 명태의 먹이생물로 개발한 것이다.
20. 이 글은 국민 생선인 명태가 2008년 이후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는데, 연구팀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 양식에 성공한 소식을 전하고자 쓴 글이다. 사라졌던 국산 명태의 복원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목을 '명태의 귀환'이라고 붙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1.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글의 내용, 주제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해 보고 사용해야 한다. 14에는 연구팀이 완전 양식에 성공하여 동해에 방류한 인공 1세대 명태들이 자연에 잘 적응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실제 명태를 방류하는 사진을 활용하면 사실감이 있고 글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22. 15~16에서 글쓴이는 국립수산물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 변순규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명태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제, 대량 생산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 도울 수 있다.

23. 명태의 복원을 위해서 연구팀은 인공적으로 명태를 양식하였다. 이런 인공 양식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태를 방류하고, 동해에서 잡힌 명태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본 것이다.

시험엔 이렇게!!

244~247쪽

1. ⑤ 2. ⑤ 3. ⑤ 4. ④ 5. ④ 6. ⑤ 7. ④

1. 2008년 이후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명태는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인기가 좋아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된다. 그러나 소비되는 대부분의 명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수입된다.

오답 해설

① 소재목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에서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의 하나로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② 소재목 ‘명태 완전 양식, 세계 최초로 성공하다’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재목 ‘국민 생선 명태’에서 명태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생선으로 여러 종류의 음식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재목 ‘명태의 오늘과 내일’에서 연구팀이 인공적으로 키워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명태 치어 사진 자료는 명태 치어에 대한 사실적인 인상을 독자에게 줄 수 있다. 이 사진 자료에서 연구팀이

수정란을 인공 부화하여 명태 치어를 확보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 글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의 관심과 흥미, 주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전달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매체 자료는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글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한다.

4.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 주는 도표 자료는 복잡한 수치와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5. 글에 쓰인 매체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글의 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지,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자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다양한 색채나 도형의 사용 유무보다는 적절한 형태로 적절한 위치에 사용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6. ㉞는 도해를 통해 명태의 한살이를 제시해 줌으로써 명태의 양식 과정에 대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면에 ㉟는 명태의 먹이생물인 로티퍼의 모습을 사진 자료로 사실감 있게 보여 주고는 있지만, 이 자료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7. ㉠와 같은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대상의 수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래프는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동해 표층 수온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 ② 2. ⑤ 3. ④ 4. 건강한 수정란을 얻을 수 있는 명태
어미 고기를 동해에서 찾기가 쉽지 않음. 5. ② 6. ④
7. ① 8. ③ 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① 14. ①
15. ④

1. (가)에서 명란젓은 통통한 주머니 안에 작은 알들이 가득한 것으로 명태의 알을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창란젓은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는데 명태의 내장을 이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다)에서 명태는 깊은 바닷속에 살기 때문에 자망을 이용해 잡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명태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동해 표층 수온의 상승으로 1990년대부터 우리 바다에 거의 없었던 온대성,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은 2015년 1월, 건강한 자연산 명태 어미 한 마리를 구해 수정란 인공 부화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기>의 포스터 내용은 동해의 자연산 어미 명태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명태 완전 양식을 위해서는 국산 명태에게서 건강한 수정란을 얻어야 한다. 국산 명태를 구하기 위한 연구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다)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나)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명태의 어획량 변화 양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4. '걸림돌'은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공 양식에 필요한 수정란을 얻을 수 있는 어미 명태를 동해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함축하고 있다.
5. (가), (나)에서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공 양식에 성공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들을, (다)에서는 인공 부화에 성공하여 기른 명태들을 동해에 방류하여 자연 적응 상태를 확인한 내용, 또 앞으로 명태 대량

생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태 완전 양식을 통한 국산 명태 복원 과정이 중심 내용이 된다.

6. (다)에서 자연산 명태 어미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2문단에서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의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연구팀의 연구 결과 명태는 섭씨 7~12도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③ (나)에서 우리나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명태 전용 배합 사료를 먹은 양식 명태들이 자연 상태에서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가)~(다)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한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명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의 사진 자료는 글의 내용 이해에 전혀 필요한 자료가 아니다.
8. (가)에 제시된 로티퍼 사진 자료는 명태의 먹이생물인 로티퍼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알려 줄 수는 있으나, 글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
9. 이 글은 기사문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연구팀이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글쓴이는 양식을 통해 명태를 복원한 과정에 대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동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 변화를 제시하면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명태가 사라진 원인, 그로 인한 결과가 상세하게 드러난다.
④ (가)와 (나)의 첫 행을 보면 단락 내용을 압축한 소제목을 활용하여 단락의 중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완전 양식의 개념을 밝혀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0. ㉠의 내용과 관련하여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의 동해의 표층 수온 변화를 보여 주는 꺾은선 그래프를 매체 자료로 활용하면 그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11. ㉡의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은 냉수성 어종이 아니다. 냉수성 어종은 차가운 물에 살기에 적합한 어종으로 멍태나 대구, 정어리 등이 있다.

12.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매체를 활용하려면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써야 한다.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보다는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자료보다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글의 내용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 ②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이어야 한다.
 - ③ 자료의 출처는 분명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흥미, 수준 등을 고려한 자료이어야 한다.
13. <보기>는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동해 연평균 표층 수온의 상승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멍태와 정어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14. 동해의 표층 수온의 상승은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인 멍태에게는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멍태가 동해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5. 연구팀이 개발한 고에너지 멍태 전용 배합 사료는 멍태가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사료를 먹고 자란 연구팀의 양식 멍태가 자연 상태에서의 멍태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다.

(2)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259~267쪽

꼭꼭 확인 문제

1. ㉠ 2. ㉢ 3. ㉠ 4. ㉤ 5. 동전 세 개 중 500원 동전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6. ㉠ 7. ㉠ 8. ㉠ 9. ㉢ 10. 50원, 100원, 500원 동전의 크기는 모두 다르며 뒤로 갈수록 크다. /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 11. ㉢ 12. ㉠ 13. ㉢ 14. ㉢ 15. 같은 밝기의 두 네모 칸을 보고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의 칸이 더 밝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16. ㉠ 17. ㉠ 18. ㉤ 19. ㉢ 20. 망막에 맺힌 상(실제의 시각적 감각)과 배경지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망막에 맺힌 상과 배경지식이 불일치하여 배경지식을 적용한 결과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21. ㉤ 22. ㉤ 23. ㉠ 24. ㉠ 25.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착시 현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강연이다.

- 1. 3에서 착시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조 자료로 제시하여 착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 2의 ‘착시는 우리가 ~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는 착시의 개념이 무엇인지 풀어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에 해당한다.

지식 창고 - 다양한 설명 방법

- 분류: 어떤 대상이나 생각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 지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
- 대조: 사물의 특성을 그 상대되는 성질이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
- 정의: 그 대상의 뜻과 의미, 개념 등을 풀어 설명하는 진술 방식
- 열거: 의미상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으며 설명하는 진술 방식
- 묘사: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생생하게 그려 내는 진술 방식

- 3. 착시는 ‘보는 것’이므로 시각적 감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 4. 이 강연에서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1~3 부분에서는 착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2에 제시되어 있다.

② ①에 제시되어 있다.

③ ①에 제시되어 있다.

④ ③에 제시되어 있다.

5. 착시는 ‘그렇게 보았다고 착각하는 현상’으로 ③의 끝부분에 ‘정상적으로 착시가 일어났다면 500원 동전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 거’라고 제시하고 있다.

6. 이 강연은 착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이다. 강연을 들을 때에는 비판적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인 이 강연에서는 강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듣는 태도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7. 착시는 ‘뇌가 배경지식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보고 인식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④에서 ‘뇌가 배경지식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보고 인식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라고 하였다.

④, ⑤ ④에서 ‘배경은 어둡고, 우리는 한쪽 눈마저 가렸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미 아는 정보, 즉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거리를 판단했던 겁니다.’라고 하였다.

8. 이 강연은 ‘착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착시’란 ‘시각’과 관련한 착각 현상이므로, 시각 매체 자료가 청중의 이해를 높이기 좋은 매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강연자는 청중에게 ‘~습니다, ~어요’ 등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③과 ⑤에서 착시와 관련된 예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고, ④에서는 ③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통해 착시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③ ‘동전 셋이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두 막대 중 어떤 게 더 길어 보이나요?’ 등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⑤ 이 강연은 착시 현상의 예를 제시하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직접 경험하게 한 다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9. ①의 앞부분에서 배경이 어둡고 한쪽 눈을 가렸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배경지식을 통해 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세 개의 동전 중 500원짜리 동전의 크기가 가장 큰데 세 동전의 거리가 같게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이 적용되어 500원짜리 동전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10. 배경지식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④에서 설명한 착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지식은 동전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과 거리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11. 이 강연에서는 여러 가지 착시의 예를 제시하여 착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삶에서 강연자가 경험한 내용이나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과 같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강연은 예를 통해 착시의 개념과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④ 착시 현상에 대한 강연자의 비판적 시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배경지식의 영향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조적인 두 현상이 아니라 동일한 현상을 제시한다.

12. ⑦에서는 착시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해 주는 사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착시 현상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13. 이 강연은 착시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내가 보는 세상이 사실 착시일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이 강연은 과학적 현상 중 착시에 대한 개념과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15. ⑦에서는 그림자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인해 같은 밝기의 두 네모 칸의 밝기를 다르게 보는 착시가 일어나는 예가 제시되어 있다.

16. ⑧에서 ‘사물을 볼 때 배경지식이 영향을 미쳐, 실제로 다른 것을 자기는 맞게 보았다고 착각한 경우’라고 설명

하였으므로 착시 현상은 시각적 감각과 배경지식이 더
해져 이루어지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9에서 '착시는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
닙니다.'라고 하였다.

③, ④ 9에서 '우리는 착시가 일어난 것을 깨닫지도 못
한 채 사물을 보곤 합니다.'라고 하였다.

⑤ 9에서 '착시 현상을 우리 생활에 이롭게 이용할 수
는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17. ②~⑤는 8의 착시 현상을 경험했을 때 든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①은 착시가 아닌 실제 현상에 대한 설명
이다.

18. 10에서 시각 매체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착시 현상을
우리 생활에 이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
로, 10의 시각 매체 자료는 착시를 우리 생활에 이롭게
이용한 예를 담은 것이다.

19. 9에서는 착시 현상은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며, 옳다 그르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 뒤에 이어지는 문
장에서 착시를 우리 생활에 이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
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
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앞과 뒤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어이다.

②, ④, ⑤ 앞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 등의 관계를
이룰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어이다.

20. 9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제
시되어 있다. 우리가 사물을 두 번 볼 때 그 두 번이 일
치하면 착시가 일어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면 착시가
일어난다.

21. 12에서 강연자는 배경지식 때문에 착시가 일어난다는
점이 재미있고 신기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1의 예를 통해 학교 주변 도로에서 착시 현상을 혼
하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11의 예를 통해 착시 현상을 이용하면 도로 위의 글

자가 더 잘 보이도록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2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때문에 착시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④ 12에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의 하나로
받아들이고'라고 하였다.

22. 강연자는 착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청중에게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착시 현상에 대한 강연자의
반성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23. 강연자는 우리 생활에 착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도로
위에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2>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4. 11에서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
은 크게 보인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지식을 바탕으
로 우리 뇌는 <그림 2>의 글자 모양이 아닌, <사진 2>
의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라고 하였다.

25. 12는 강연의 마무리 부분으로서, 착시 현상에 대한 지
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강연자의 말을 통
해 이 강연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한다.

지식 참고 - 강연의 구성

- 서론(도입): 주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말로 청중의 주의
를 집중시킴.
- 본론(전개): 청중의 심리를 유도하면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함.
- 결론(집약, 정리):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여 주장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시험엔 이렇게!!

268~271쪽

1. ⑤ 2. ⑤ 3. ① 4. ① 5. ⑤ 6. ③ 7. ⑤

1. 같은 크기로 나란히 배열된 동전을 보고 일어난 착시
현상과 철길 위 막대의 길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착시
현상은 모두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인다'는 우리의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
어난 현상이다.

2. ①~④는 착시 현상에 의한 판단이고, ⑤는 실제의 사실
이다.

3. 이 강연에서 사용된 것은 모두 시각 매체 자료이다. 이 강연은 착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이므로 시각 자료가 청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식 참고 – 매체의 종류

시각 매체(사진, 그림 등), 청각 매체(소리, 음악 등), 복합 매체(동영상)

지식 참고 – 매체를 활용할 때의 장점

-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면 발표 내용의 정리가 명확해진다.
- 발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식 참고 – 매체 자료 구성 시 유의점

- ① 발표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여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 ② 발표 상황과 맥락,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 발표 장소가 자신이 구성한 매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살펴본다.
 - 매체 자료가 청중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
 - ③ 매체 자료 이용 윤리를 지켜야 한다.
 - 다른 사람이 만든 매체 자료는 사전에 미리 사용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매체 자료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4. 제시된 사진 자료는 모두 착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착시 현상이 우리의 배경지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다.

오답 해설

- ② 세 동전의 거리, 두 막대의 길이와 관련된 착시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③ 원통형의 그림자 착시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④ 세 동전의 거리와 관련된 착시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⑤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사진 자료의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 글자의 착시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의 효용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5. 제시된 자료는 착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로 선정된 자료이다. 특정 장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자료 선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시각 자료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6. 이 발표는 ‘신비의 도로’가 ‘도깨비 도로’로 불리는 이유, 즉 ‘신비의 도로’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발표이다.
7. ㉠에 비해 ㉡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착시 현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높이고 있으므로 더 효과적인 발표는 ㉡이다.

소단원 나의 실력 다지기

275~277쪽

1. ① 2. ④ 3. ⑤ 4. ① 5. ① 세 개의 동전은 같은 거리에 놓여 있다. ④ 500원짜리 동전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6. ② 7. ④ 8. ④ 9. 사물을 볼 때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자신이 본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난다. 10. ② 11. ⑤ 12. ⑤ 13. 착시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자.

1. 이 강연은 착시 현상의 예를 통해 청중에게 착시 현상의 개념과 그 원인을 이해시키고 있다.
2. 제시한 세 동전의 크기가 같다는 정보 없이, 세 동전은 원래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배경지식이 작용하여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3. 청중에게 착시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시각 매체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착시 현상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청각 매체 자료는 ‘착시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강연자는 착시를 일으키는 사진을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어떤 동전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나요? 또 어떤 동전이 가장 멀어 보이나요?’ 처럼 질문을 통해 청중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④ 시각 자료를 통해 청중이 착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청중이 착시 현상에 대한 설명에 공감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4. 매체 자료는 강연을 듣는 청중의 수준에 맞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지식 창고 - 자료의 적절성 판단하기

- 필요한 형태로 제시되었는가?
- 필요한 위치에 제시되었는가?
- 필요한 정보 수준으로 제시되었는가?
- 자료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출처는 믿을 만한가?
-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쓴이의 주장이나 설명 내용에 적합한가?

지식 창고 -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

- 출처가 분명한 자료
-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
- 주제와 긴밀히 연관된 자료
-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자료
- 여러 매체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
- 읽는 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료
- 여러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5. '사실 이 그림에서 동전 세 개는 같은 크기로, 같은 평면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착시가 일어났다면 500원 동전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 거예요.'라는 내용을 근거로 ㉡에 들어갈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6. (가)와 (나)는 착시 현상을 보여 주는 두 가지 예이다. 착시 현상을 경험하게 한 후 착시 현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청중에게 착시 현상의 사례와 원인을 이해시키고 있다.
7. (나)에서 '어떤 칸이 더 밝아 보이나요? 아마 많은 분이 B라고 생각할 겁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A보다 B가 더 밝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두 막대의 실제 길이는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 ② (가)의 '위에 있는 막대가 더 길다고 생각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어떤가요? 두 칸의 밝기가 같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그림자가 드리우면 어두워진다.'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B가 더 밝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8. 이 강연에 사용된 매체 자료는 착시를 일으키는 두 가지 시각 매체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청중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청중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착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강연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강연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9. (가)와 (나)에 제시된 착시 현상의 예는 모두 우리가 본 것에 우리가 가진 배경지식이 적용되어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10. 강연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즉 배경지식 때문에 착시가 일어난다는 점을 재미있고 신기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③ 강연자는 착시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의 하나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착시는 의도적 현상이 아니다.
- ④ 강연자는 착시 현상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으나, 착시가 항상 우리 생활에 이롭게 쓰인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 ⑤ 착시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의 하나이므로 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
11. 강연자는 착시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한 사례의 하나로 도로에 쓰인 '어린이 보호 구역'의 두 가지 예를 보여 준다. <사진 1>은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사진 2>는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잘 보이므로 <사진 1>보다 <사진 2>에서 일어난 착시 현상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강연자는 착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강연자가 <사진 1>보다 <사진 2>에서 일어난 착시 현상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강연자는 착시 현상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사진 1>, <사진 2>는 모두 실제 글자와 도로 위에서 보는 글자의 모양이 다르므로 착시의 예이다.

③ 강연자는 <사진 2>가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잘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그림 2>의 글자가 차 속도를 늦추게 하는 데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④ <사진 1>, <사진 2>, <그림 1>, <그림 2>를 통해 우리 생활에 더 도움이 되도록 착시 현상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제시된 시각 자료는 같은 내용의 글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운전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청중에게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이롭도록 이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13. 강연의 마무리 부분에서 착시에 대한 강연자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착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자는 것이다.

대단원 평가 대비하기

280~284쪽

1. ⑤ 2. ② 3. ① 4. ① 국산 명태의 실종 /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5. ② 6. (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겪은 어려움과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7. ② 8. ④ 9. ① 10. 명태의 수가 줄어 성숙하거나 건강한 어미 명태를 잡기 힘들었고, 명태가 잡히더라도 잡히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국산 명태 복원에 필요한 명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11. ② 12. ⑤ 13. 망막에 맺힌 상(시각적 감각)에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실제와 다르게 대상을 인식하는 현상 14. ⑤ 15. ① 16. 예시 답: 동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프 /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프 17. ②

1. (나)에서는 ‘우리 바다에서 명태의 씨가 말라 버렸다.’는 상황을 유발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명태가 귀해진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는 거의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명태가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된다는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생선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명태 살코기 자체의 맛이 없어 불에 직접 구워 먹기를 좋아하는 식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렇게 있기 있는 생선이 아닌 반면,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에는 딱 맞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③ 생태, 동태, 코다리, 노가리, 황태, 북어 등 명태의 다양한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 많은 이름처럼 명태가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선임을 말하고 있다.

④ 1970년대 7만 톤, 2008년 이후 1톤 안팎으로 잡힌다며 명태의 어획량 수치를 제시하여 명태 어획량의 감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나)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가 거의 다 수입산인 것은 명태 어획량 감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명태의 어획량이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3. 제시된 시각 매체 자료는 명태의 한 종류인 노가리 요리로 나온 사진 자료이므로 여러 가지 명태의 이름이 나열되는 [㉞]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기사문의 소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태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명태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나)의 내용을 반영하는 제목으로 한다. 단 소제목으로 제시될 내용이므로 중심 내용을 포괄하되, 간략하게 표현하도록 주의한다.

5. (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인공 부화의 성공을 다루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2015년 2월 질 좋은 수정란 53만 개를 얻어 인공 부화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6. <보기>의 매체 자료는 ‘살아 있는 명태 어미 고기 현상금 포스터’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명태 어미가 필요하였으나, 건강한 자연산 명태를 구하기가 힘들어 현상금까지 내걸었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현상금 포스터를 시각 매체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7.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명태가 섭씨 7~12도(℃)의 차가운 온도에서 잘 자란다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라)에 2016년 동해에서 잡힌 명태의 유전 정보가 인공 1세대와 일치하여 인공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

해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마)에 명태의 다양한 양식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 국산 양식 명태가 올라오리라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이제 막 인공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아직 양식 명태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도록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우리 바다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식을 통해 명태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8. (다)에서 보통의 어류 종자 먹이인 로티퍼가 자라는 수온과 새끼 명태가 살아가는 수온이 맞지 않아서 저온성 로티퍼를 따로 배양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다)의 내용으로 볼 때 일반 로티퍼는 섭씨 25도(℃) 이상의 환경에서 잘 자라는 반면, 명태는 섭씨 7~12도(℃)의 차가운 온도에서 잘 자란다.

③, ⑤ (다)의 내용으로 볼 때 명태에게 맞는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의 개발로 명태가 성숙하는 데 걸리는 시기를 3~4년에서 1년 8개월로 줄일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보기>는 명태가 왜 우리 국민에게 사랑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명태는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 크게 사랑받은 생선이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명태를 복원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 명태는 다른 나라에서 그다지 인기 있는 생선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③ 머지않아 양식 명태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을 기대한다는 (마)의 내용으로 보아 명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머지않아 양식 명태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을 기대한다는 (마)의 내용으로 보아 명태의 질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다)에서 양식 명태의 성숙 기간을 1년 8개월로 줄일 수 있고 (마)에서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의 수조 양식과 바다의 가두리 양식으로 동시에 명태를 키워 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명태 공급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10. (나)의 내용을 통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팀'이 어미 명태를 찾는 첫 과정부터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같은 길이의 막대를 다른 길이로 판단한 착시 현상을 보여 주는 예로 우리 생활에 이롭게 활용된 사례는 아니다.

12. <사진 1>, <사진 2>는 모두 착시 현상(시각적 감각과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본 상이 일치하지 않아 배경지식을 적용한 결과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착시 현상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다.

② <사진 1>은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사진 2>는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잘 보인다. 따라서 <사진 2>가 도로에 글자를 쓰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

③ <사진 1>, <사진 2>는 모두 착시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④ <사진 1>과 <사진 2>에서 글자 이외에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은 없다.

13. 1문단의 내용을 통해 착시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14. 매체 자료는 청중이나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내용의 성격상 (가), (나)와 (다)는 시각 매체 자료가 어울리는 글과 강연이다.

오답 해설

①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가), (나)는 기사문이므로 청각 매체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글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

15. (나)에서 명태는 섭씨 7~12도(℃)의 차가운 온도에서 잘 자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가)의 빈칸은 명태가 사라진 원인으로 동해 표층 수온의 변화를 제시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빈칸에 연결되는 뒷부분 역시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동해가 이제는 명태가 살기 어

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6. (가)의 핵심 내용은 기후 변화로 인해 동해 수온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명태, 정어리, 갈치, 쥐치 등의 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를 매체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17. (다)는 예를 통해 착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착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뇌가 배경지식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보고 인식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 ③ 우리 뇌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거리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착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④ 제시된 사진을 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착시가 일어났다면 500원 동전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므로 착시 현상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⑤ 한쪽 눈으로 그림을 보게 함으로써 동전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들고, 이에 따라 우리 뇌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논술형 평가 대비하기

285~286쪽

(1) 명태의 귀환

1. (가)에서는 다양한 이름과 요리법에서 알 수 있듯이 명태가 우리 국민에게 사랑받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명태 요리 사진 자료나 명태의 다양한 이름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1980년부터 2000년대의 명태 어획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명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명태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3. 명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특히 알이나 어린 고기가 까지 요리의 재료로 인기가 있었기에 어린 고기나 알을 뺀 고기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게 되면서 명태의 씨가 마르게 되었다.

(2)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1. ㉠: 실제 길이가 같은 두 막대의 길이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 / ㉡: 실제 밝기가 같은 A, B의 밝기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
2. ㉢: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고, 가까운 사물은 크게 보인다. ㉣: 위의 막대가 더 길다. ㉤: 그림자가 드리우면 어두워진다. ㉥: B가 더 밝다.
3. 이 강연에서는 시각 매체인 사진을 사용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높인다.

(1) 명태의 귀환

1. 이 글은 기사문이며 (가)는 명태의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문이고 (가)가 명태의 명칭과 명태 요리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명태의 명칭에 따른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와 여러 가지 명태 요리의 사진 자료, 즉 시각 매체를 제시하는 것이 기사문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평가 요소	확인(✓)
적절한 매체 자료를 바르게 제시하였다.	
제시한 매체 자료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가)의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2. 그래프는 (나)의 내용을 그대로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글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그래프로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명태 어

획량이 급감하고 있음을 실감 나게 하여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3. 명태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명태의 알과 어린 고기까지 먹는 탓에 명태를 마구잡이로 잡은 것과 동해 표층 수온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이 중 명태가 국민 생선이 된 이유와 연결할 수 있는 원인은 어린 명태와 알까지 즐겨 먹는 음식 문화로 인한 마구잡이라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확인(✓)
명태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 이유를 한국의 음식 문화와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명태가 사라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2)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1. (가)에서는 실제로는 같은 길이인데 멀고 가까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으로 인한 착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야 하며, (나)에서는 실제로는 같은 밝기인데, 그림자가 있는 부분은 어둡다는 배경지식으로 인한 착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평가 요소	확인(✓)
㉠과 ㉡ 각각에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였다.	
㉠과 ㉡ 모두 '실제',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말을 넣어 서술하였다.	

2. 이 글은 착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가)에서는 길이에 대한 착시를 (나)에서는 밝기에 대한 착시를 설명하고 있으며, 착시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가진 배경지식을 들고 있다. 즉 길이에 대한 착시의 원인은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한 인간의 배경지식, 밝기에 대한 착시의 원인은 그림자로 인한 밝고 어두움에 대한 인간의 배경지식에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가)와 (나)에 적용된 배경지식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가)와 (나)에서 일어난 착시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3. 이 강연에서는 착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착시 현상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자료는 시각 매체 자료에 해당한다. 이 강연에서는 사실을 알려 주기 전에 먼저 사진을 보여 주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착시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실제 길이와 밝기를 증명해 주는 사진을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평가 요소	확인(✓)
강연에 사용된 매체 자료의 종류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강연에 사용된 매체 자료의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서술하였다.	